

무위당 22주기 기념  
생명평화활동가대회

국가주의와  
성장주의  
를 넘어,  
자립과 자치의  
새로운 나라 만들기

무위당을 통해 바라본 새로운 세상  
풀뿌리자치 공동체운동과 새로운 나라  
탈성장 시대, 자립적 삶과 새로운 나라

2016년 5월 20일(금) 오후 1시  
@원주시립박물관 강당



무위당 22주기 기념 생명평화활동가대회

국가주의와 성장주의를 넘어,  
자립과 자치의 새로운 나라 만들기

무위당만인회 · 모심과살림연구소



차례

## 준비 발제문

### 무위당을 통해 본 새로운 세상 \_ 4

김용우 (무위당만인회 기획위원장)

### 플뿌리자치 공동체운동과 새로운 세상 \_ 14

이호 (플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연구위원)

### 탈성장 시대, 자립적 삶과 새로운 나라 \_ 22

정규호 (모심과살림연구소 소장)

## 토 론 (기록)

### <1부> 플뿌리자치 공동체운동과 새로운 세상 \_ 36

진행: 전진택 (생명평화결사 대외연대협력위원장)

토론: 박수영 (원주푸드협동조합 사무국장)

신지예 (녹색당 정책위원)

이필구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국장)

### <2부> 탈성장 시대, 자립적 삶과 새로운 나라 \_ 46

진행: 김신양 (모심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토론: 김성훈 (대전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부이사장)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박내현 (청년공동체 도꼬마리 운영자)

이무열 (마케팅-커뮤니케이션협동조합 살림 이사장)

## 무위당을 통해 본 새로운 세상

요약정리 김용우 (무위당만인회 기획위원장)

### 1.....

무위당 선생이 어떤 딱 만들어진 유형의 세상을 바랐거나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다만 무한성장주의와 근대국가로 상징되는 근대문명에 대해, 문명을 지탱하는 주류철학이 주객분리의 이원론으로 인간의 욕망을 끊임없이 자극함으로써 감당이 안 되는 경쟁과 투쟁의 삶을 살고 있는 바를 지적하였다. 여기저기 말씀하신 것을 보니, 자연과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존재하는 우주적 존재임을 각성하고 상생의 공동체적 삶을 통해 인간성숙을 지향해 나가면서 근대문명을 넘어서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다.

근대문명을 넘어서는 방법도 일관되게 말씀하셨다. 근대철학에 대응하여 생명에 대한 각성과 수행, 경쟁과 투쟁의 운동이 아니라 협동과 공생의 자립과 운동, 시민(또는 주민) 각성을 도모하는 자치운동, 근대문명을 넘어서기 위한 생활문화운동 등 다양한 대안운동의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그 덕분이기도 하고 한국사회 활동가들의 노력과 우주기운이 조응하여 2000년대 들어 한국 사회에서는 다양하고도 풍성한 대안운동이 발전하였다.

초창기 한살림운동으로 대변되던 유기농업운동과 생활협동조합운동은 다양한 협동조합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귀농운동, 마을공동체운동, 공동육아와 대안교육운동 등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지역공동체운동이 확장되고 있다. 환경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문제의 생명평화적 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단체들도 생겨나고 있다. 최근 원불교 100주년 활동가대회에서는 ‘사회운동과 영성’에 대한 주제들이 처음으로 활동가들을 통해 논의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전반적인 근대문명의 쇠퇴와 위기 속에서 전통적인 사회운동을 대체할 만큼의 생명(평화)운동의 확장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 중 핵심적인 문제들에 대해 다양한 영역에서 생명운동에 이론과 실천의 응답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당장에 우리는 성장 중심적인 근대문명의 토양에서 성장하고 길들여진(?) 생협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현실

생명운동들이 어떻게 자립하고 자치할 수 있는지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국면에 와 있다. 즉 성장이 멈춘 또는 더 이상 성장이 불가능한 근대문명의 종언과 전환국면에서 생명공동체운동이 지향해야 할 바는 무엇인가? 또한 국가권력에 대응해 우리시대 생명운동의 공동체적 자치 지향과 과정으로서의 국가권력과 관계 전략, 한반도의 적대적 분단체제에 대한 생명운동적 인식과 해소방안 등도 중요한 논제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무위당 선생이 원론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 외에는 얼마 안 되는 강연과 생전에 고인과 함께 활동한 사람들의 증언에 의지하여 유추하거나 추론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경우 상황과 만나는 사람에 따라 말씀의 내용이 혹여 방편가설(方便假說)로 이루어졌다면 진실을 추론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직관력과 공감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니 그 의견이 꼭 맞다고 할 수도 없다.

무위당을 통해 세상을 본다는 것은 하여 무위당을 이해한 만큼 각자 각자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만 이번 자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해결을 위한 이야기마당의 자리이니 만치 그와 관련된 장 선생의 말씀을 몇 구절 선별해 봤다. 이것도 선별자의 눈이다.

山不利 水不利 利在挽弓之間

제가 해월선생 법설을 접하다 보니까 아주 오래전에는 저걸 보고 감이 잘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근자에는 심각하게 감이 오는 게 있어서 그 점을 말씀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세월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정감록>에서 ‘산에 가도 이롭지 않고 들에 가도 이롭지 않고 산도 아니고 들도 아닌 데가 좋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서 첫 번째는 저 글귀를 보고선 그와 비슷한 걸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게 무엇에 해당하는 말씀인가 이랬는데, 근년에 이제 한 십년 안쪽으로 이렇게 접해보면 요샌 가끔 저 생각을 합니다만 ‘山不利 水不利 利在挽弓之間’이라. 산도 이롭지 않고 물도 이롭지 않고 이로운 것은 화살을 이렇게 당기고 있는 그 사이에 있나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심상태, 무욕상태 그래서 단심으로 활을 나꾸고 있는 그런 상태래야, 그러니까 활에 다 신경을 쓰지도 않고 과녁에다가도 너무 혼을 뺏기지 않는 자연스러운 상태, 무심상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단순히 그렇다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 하나 들어갈 사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무심상태지만 거기에 머리카락 하나 들어갈 틈 없는 그러한 자세, 그렇게 되면 이롭다 그 이야기지요. 그렇게 되면 구원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 바깥에 나간 서방님이 들어오실 때가 돼서 기름을 미리

준비하는 아낙들과 같다 그 말씀이에요. 딴 데 방심하고 있다가 서방이 돌아올 때를 모르고 기름을 구하려고 할 때에는 기름을 누가 줄 사람이 없어. 다 바빠 제몫만 가지고 있으니까.

- 『나락 한알 속의 우주』, 「자애와 무위는 하나」, 83쪽

## 2. 우리는 누구인가?

우주적 존재로서 인간적 성숙과 사회적 성숙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제자리를 제대로 찾자면 자연과 인간과 또 인간과 인간일체가 하나 되는 속에서 “너는 뭐냐”. 그렇게 되었을 적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고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체의 조건이 나를 있게끔 해 준 것이지 내가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따지고 보면 내가 내가 아닌 거지. 그것을 알았을 적에 생명의 전체적인 함께 하심이 어디에 있는 줄 알 것이고 우리가 연대관계 속에 유기적인 관계 속에 있으면서, 헤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투쟁의 논리가 아니라 화합의 논리요 서로 협동하는 논리라는 그런 시각으로 봤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새 시각 속에서 우리 한살림공동체 이야기도 될 수 있겠지

- 『나락 한알 속에 우주』, 「화합의 논리, 협동하는 삶」, 39쪽

수행

我有一卷經 나에게는 한권의 경전이 있네  
不因紙墨成 지묵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네  
展開無一字 펴보면 글 한자 없으나  
常放大光明 늘 상 온 누리를 비춘다네

-채근담

그런데 불가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는고 하니 正念工夫 相續不斷(정념공부 상속부단)이라. 이거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고대(방금) 해월 선생이 말씀한 말씀내용이나 같은 내용이에요. 마음챙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八正道(팔정도) 안의 한 말씀인데 정념공부, 마음챙김이다 이말이에요. 한눈 파는 것, 딴생각 하는 것, 쓸데없는 생각하는 것,

이것저것 생각하는 것,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는 공부, 단심한 공부, 아무 계산이 없는 명경지수 같은 마음의 공부 이것을 계속해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야 다시 이야기하면 각(覺)의 상태, 잠을 자지 않는 상태에 있다 그 이야기지요. 깨어 있는 상태다 그 말씀이에요.

- 『나락 한 알 속의 우주』, 「자애와 무위는 하나」, 84쪽

### 3. 근대문명과 현실

근대문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철학과 성장경제, 국가주의로는 인류의 성숙이 어렵다

“지금 봐서는 문명 자체가 막을 내려야 할 시기에 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무대의 막이 단시일 내에 딱 끝나고 다른 막이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산업문명 기술이라든지 그 속에서의 이윤추구라든지 이런 것에서 맴돌다가는 결정적으로 인류생존의 파국을 가져온다고 봐요. 현 단계에서 공동적인 산업문명 속에서 서구유럽에서 개발했던 하나의 모범과 경험은 굉장히 허무하게 돌아갈 겁니다. 자연에 대한 지나친 착취와 소모, 소위 성장을 주안으로 하는 산업문명은 그만큼 지구 자연이라든지 생태계 파괴를 가속화 시키는 거니까요. 얼마나 더 견뎌낼 거냐.”

- 『너를 보고 나는 부끄러웠네』, 「민주의 길에서 생명이 길로」, 126쪽

그 다음이 검(儉)인데요. 노자에 ‘치인사천막약색(治人事天莫若嗇)’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기는 데 알뜰함만 한 것이 없다”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지금은 알뜰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왜 알뜰할 수가 없게 돼 있느냐. 지구 전체가 지금 온통 장삿속으로 돌고 있어요. 죄다 욕심판이예요. 그걸 하면 돈이 얼마나 드느냐, 그 거 하면 얼마나 받느냐. 박사 되면 월급을 얼마나 받나. 사장하면 얼마를 받느냐. 전부 이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기준이 돼 있는 세상이니깐,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데 적당한가. 알맞나 이러한 문제는 애기도 안 되는 거라. 옷도 유행에 따라서 맞춰 입지 않으면 그 사람은 흰 오리떼 속에 검은 오리모양 끼이지 못하는 거죠. 세상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니까 지구가 파멸상태로 가고 있어요. 인간의 이 문명이란 게 어느 지

경까지 왔느냐. 미국도 그렇고 소련도 그렇고, 영국, 독일, 불란서 같은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 심지어는 우리까지도 사람 죽이는 무기를 생산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이익이 제일 많아요. 전부 무기장사라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문화인이라고 문명인이라고 거들먹거리고 있으니 완전히 넌센스죠. 그것을 받쳐주고 있는 학문, 오늘날의 문화, 오늘날의 문명이 뭐예요. 자원을 누가 많이 차지해서, 누가 많이 만들어서, 누가 많이 팔아먹느냐 하는데 모두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이익을 많이 남기는 놈이 왕인 세상이예요. 그것은 반생명적이고 반자연적이고 반인간적인거예요.

- 『너를 보고 나는 부끄러웠네』, 「세상일체가 하나의 관계」, 101쪽

#### 4. 방향1-생명 공동체 협동 자립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중언부언, 이런얘기 저런얘기, 자꾸 얘길 하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당면한 과제가 뭐냐는 거야. 두 가지가 있어. 반생명적인 일체의 조건을 갖다가 다시보고 그것에서부터 우리는 탈출해야 돼. 엑소더스. 그것은 주먹을 쥐고 상대를 때려눕히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변화시키는 운동으로, 비협력으로 탈출해야 돼. 비폭력으로 탈출해야 돼. 이 비폭력과 비협력은 간디 선생도 말씀했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사상에 수운이나 해월의 동학사상에도 구구절절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때문에 3.1만세에 민족의 자주를, 민족의 존재를, 거룩한 민족으로서의 입장을 천명하는 속에서도 비협력과 비폭력이라고 하는 정신 정신이 깃들어 있던 거야. 그건 바로 동학의 정신이야. 또 그 동학의 정신은 뭐냐. 아시아에 수천 년을 내려오는 유불선의 맥에서 온 거야. 그런데 이러저러한 것이, 모든 종교가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가지고 있던 아집(我執)의 담을 내리고 서로 만나면서 니 지구에 한 삶터, 한 가족, 한 몸, 한 생명 이것을 어떻게 풀어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서로 얘기해야 돼.

- 『나락 한 알 속의 우주』, 「사심없이 자기부정을 하고 가면」, 127쪽

-선생님의 이론은 모두 협동운동으로 귀착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주의 모든 생태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갈라놓을 수 없고 갈라놓고 지배하는 형태가 아니라....남북의 분단도 그렇지 않습니까. 갈라놓고, 지배당하고, 지배하는 쪽에 붙어먹는 패거리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의 생명단위로 태양과 지구가 있고,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협동적으로 존재할 때만이 생명을 유지하는 겁니

다. 그런 안목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내 소유로 하겠다고 갈라 가졌어요. 그런 자연히 이상에 맞지 않아 함께할 수 없었던 거지요.”

- 『나락 한 알 속의 우주』, 「겨레의 가능성은 대중속에」, 154쪽

본래 유럽으로부터 온 소비조합이나 신용조합, 생산조합이란 압정에 시달림을 받아오던 사람들이 산업혁명이후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것입니다만, 지금은 대기업의 하청업과 같은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구가 위험해지는 상황에서 ‘신용’도 ‘협동’도 다른 개념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바꾸어갈 것인가는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무엇이나 그 답이 나와 있는 듯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만, 그것은 환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창조적 진화가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모두 제각기 진실을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 『나락 한 알 속의 우주』, 「풀 한 포기도 공경으로」, 148쪽

그리고 유사단체 있잖아요. 우리 한살림 말고 다른 단체가 또 이렇게 해가는 단체가 있을 거란 말이야. 만나라는 말이야. 문제는 공동의 과제를 밀고 나가야지. 어차피 운동에는 다 각각이지만 각각이라도 연대해가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생명세력, 반생명적으로 문제를 끌고 가는 힘에 대항해서 우리가 일을 확산해 갈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만 한 가지라도 사회를 위해서 밝게 일해가고 있고 좋은 일 해가고 있는 그러한 단체는 연대를 하자고 할 때는 함께하자는 말이에요. 함께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오느냐. 아까 얘기한대로 보글보글 혼자 우리끼리만 놀다가 끝나게 돼요.

- 『나락 한 알 속의 우주』, 「왜 한살림인가」, 109쪽

## 5. 방향2

“도대체 너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아 내 나라! 내 나라는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런 나라 아니야.” 남의 것을 힘 있으면 다 빼앗아 갖고, 갖다가 별짓 다하고, 반반한 계집년 있으면 데려다가 종년으로 쓰고 몸 다 버려놓고, 남의 금덩이도 보석이고 있으면 덮어놓고 다 노략질하는 그런 나라 아니란 말이야. 자연 속에 만물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생명의 나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나라, 나눌 수 없는 나라, 그러나 그것이 절대절명으로 지배하는 나라, 그 위대하심이 길가에 피는 작은 꽃 한 송이에도 있는

그 나라! 그걸 얘기 했어요. 참 엄청난 말이죠. 그걸 거룩한 사람들, 욕심이 없던 사람들은 일찍이 알아들었지요. 그런 사람들은 성서에서만 아니라 우리 한반도에도 많이 있습니다.

- 『나락 한 알 속의 우주』, 「나락 한 알 속에 우주가 있다」, 96쪽

나는 해방직후에 원 월드 운동(One World Movement)<sup>1)</sup>을 했어요. 그것은 아인슈타인을 비롯하여 세계 과학자들이 먼저 시작했지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된 뒤로 아인슈타인이 반성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못할 짓을 했다고요. 그러면서 세계를 하나의 연립정부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지요

- 『좁쌀한알』, 「원 월드 운동」, 168쪽

무위당은 1991년 ‘참여와 자치를 위한 시민연대회의’에 고문자격으로 참여를 하고 발기인대회에서 ‘오늘의 정치 사회현실과 시민운동’을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이어서 그해 3월에 시사저널에 인터뷰기사가 실렸는데 기자의 질문에 시민운동과 지자체선거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다.

-연대회의에 참여하게 된 까닭은 무엇입니까?

“사회전반에 걸쳐 누수현상이라고 할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붕괴될 가능성이 있기

---

1) 오쇼 라즈니쉬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인 세계정부(a world government)를 수립하지 않는 한 위대한 지성이 허용될수 없다는 사실이다. 바야흐로 세계정부를 수립할 때가 되었다. 국가정부들(national government)은 더 이상 필요 없다. 그것들은 어리석은 과거의 유물이다. 국가들은 필요 없다. 하나인 세계정부가 필요하다. 세계정부가 수립되면 세상의 모든 것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군대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서로 분쟁할 거리들이 없어질 테니까. 현재 세계경제의 70퍼센트가 군대를 유지하고 무기를 생산하는 데 쓰이고 있다. 자그마치 70퍼센트! 나머지 30퍼센트가 다른 데 사용되고 있다. 폭력을 행사하고 사람을 죽이고 도시를 파괴하는 일에 우리 에너지의 70퍼센트를 쓰고 있다는 얘기다. 하나인 세계정부야말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 세계정부의 질(質)은 국가정부들의 그것과 완전 다르다. 무엇보다도 강한 군대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작은 규모의 경찰력만으로 충분하다. 세계정부가 우체국, 철도, 항공 등을 관리하는데 오직 사람들을 섬기는 데만 그 목적과 방법이 있다. 일단 군대가 세계에서 사라지면 위대한 지성이 풀려날 것이다. 그동안 군대가 지성을 억압하고 괴멸시켜왔기 때문이다. 군대는 건강한 젊은이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그들의 생각을 파괴한다. 한 인간이 완벽한 기계처럼 될 때에만 강한 군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풍경소리』, 2016년 4월호

비슷한 관점으로 일본의 사상과 가라타니 고진은 근대국가가 두가지 방향에서 해체되어 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하나는 다양한 공동체들의 네트워크에 의한 자치로 또 하나는 UN의 세계정부로서 재정립과 국가의 수렴이다.

때문에 시민의 다양한 생활영역에 있어서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참여했습니다. 이제는 통치와 지배 차원으로는 이 복잡한 중층적 사회현상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시민이나 주민이 객석에 앉아서 하는 대로 맡길 수 없는 세상이 됐어요. 시민각자는 자기영역에서 올바르게, 건전하게 자기의 생활을 보호하고 지켜나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자제선거를 앞두고 원주는 어떤가요. 개인적으로 이번에 실시될 지자제에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선거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 형태는 구태의연해요. 이번선거는 국민이 각성하는 계기가 돼야 합니다. 우선 서울 등 대도시에서부터라도 시민연대를 통해 건전한 사람을 지자제에 내놓도록 하고 시민연대운동이 각 생활영역에 뿌리내리고, 그것이 발전해 시민주권사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당선되는 사람도 생기겠지요. 그러나 시민들의 올바른 의견이 시정에 반영된다면 지자제에 나서선 안 될 사람들은 그다음에는 후퇴하게 되고, 올바른 생활을 구축하려는 대표들이 앞으로 나설 수 있지 않겠는가 봅니다.”

- 『나락 한 알 속의 우주』, 「겨레의 가능성은 대중 속에」, 154쪽

## 6. 방향 3 -한반도

옛그제도 김지하 군이 찾아와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에 대한 그간의 모든 법을 검토해서 지방자치를 중심으로 하는 철저한 생활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좋은 애긴데 그건 바로 통일운동과 직결되는 걸세. 통일이 국가이익만 가지고 밀어붙이고 협상이 된다고 한다면 엄청난 변화를 요구하는 이 상황에서 그건 효과가 없게 될 걸세. 문제는 이 땅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삶을 어떻게 제대로 꾸려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지방자치제의 핵이 돼야 하는데, 그러려면 남북의 통일문제도 그 생명에 대한 생각을 구축하는 속에서 얘기가 돼야지. 그러니까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자네는 이런 점을 말하게.”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한 마을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전 세계의 일이요, 전 우주의 일 아닙니까?

- 『너를 보고 나는 부끄러웠네』, 「민주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118쪽

독일의 예를 보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토양이 달라 비록 통일의 형태를 이루어놓고는 있지만 원만하지 못하고 많은 무리가 오고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우리에게 통

일을 서두르지 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통일도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끼리 살아갈 수 있는 조건,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문제라고 봐요. 이윤추구가 목적이 아니라 조화의 관계를 이루어가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남과 생활이 소그룹부터 그런 경험이 축적돼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제라든가 한지역의 조그만 진실한 운동이, 자연과의 상호관계를 할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 놓은 그것이, 겉으로 볼 적에 아주 소그룹이지만 그것이 전 우주와 함께 한다고 하는, 우주와 통일한다고 하는 그런 것이다. 그러한 안목에서 문제를 다시 정립시키고 확대해 가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뭐냐면 소그룹들이 자기네 지역에서 제각기 다양하게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노력이 앞으로 계속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너를 보고 나는 부끄러웠네』, 「민주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127쪽

시간이 좀 갈 거요. 시간과 잘 싸워야지.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결국 생명운동이라는 것은 확신이 있어야 하는 거지. 생명이란 것은 눈에 보이지도 만질 수도 냄새 맡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지만 분명히 있단 말이지. 그 덕에 모든 것이 살아가니까. 유교가 중국에서 일단 참패를 본 게 무엇 때문일까? 영성이 빠졌기 때문에, 공자는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거든, 불교가 들어와서 영성을 집어넣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시대라는 게 전부 눈으로 보이는 것, 있다가 없어지는 것만을 계산하다가 보니까 이 지경으로 되었던 말이지. 우리가 얘기하는 생명운동의 핵은 전일성인데, 전(全)이란 건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활 속에서 경험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서투른 사람한테 ‘생명이 뭐냐’ 하면 ‘몰라’ 하는 게 정답이라구. 어떻게 말로 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배 맛이 이렇다 저렇다 하고 말로 얘기하는 것하고 같은 거지. 각자가 소화 시켜 나가는 수 밖에 도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생활 있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자기의 모습이 있어야 하겠지요.

- 『나락 한 알 속의 우주』, 「한살림 운동과 공생의 논리」, 209쪽

## 7. 함께 던지는 질문 몇 가지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 근대문명의 종착점이 다가온 것 아닌가? 성장경제의 영향 아래 생명운동이 길들여진 것은 아닌가? 생명공동체운동의 자립은 지금부터일 것이다. 자립은 검약과 나눔 노동, 돌봄노동에 기반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소비자의 신세를 벗어나 몸으로 하는 노동 특히 손(hand)노동의 전반적 회복 속에 공동체적 생산총량이 늘어나야 기업의 그늘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20대 총선이 끝났다. 총선과 대선은 근대국가권력을 다루는 정치판이다. 근대국가권력의 영향력이 큰 만큼 대응방안도 여러 가지다. 현실의 권력에 대응도 해야 하지만 본질과 궁극을 보면서 가야 하지 않겠는가? 민초들의 자발적 자치와 주인공으로서의 각성의 길은 무엇인가? 녹색과 자치가 어떻게 만나고 국가를 점차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남북이 대결이 10년째 지속되고 있다. 현상적이고 평면적인 근대국가와 지역체제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탈근대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의 핵심고리는 무엇이고 우리가 실천할 방도는 무엇일까? 통일보다는 평화적 2국가체제를 먼저 구축하는 것이 먼저일 수는 없는가? 통제되지 않는 하나의 국가를 세우는 게 또 꿈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민초들의 자율과 자발성신장의 길이 초점인가? 그래야 민초들의 개입여지가 많은 것 아닌가?

영성이 화두다. 그런데 내면을 향하지 않는 영성이 존재할 수 있는가? 사회적 영성인가? 통합적 영성인가? 한국사회는 다종교사회이다. 영성에 대한 다른 이름들과 자기종교중심의 언어와 수행법을 넘어 한반도인들의 영적지층들을 꿰뚫고 민초들을 평화로 이끄는 포함삼교(包涵三敎)의 영성운동의 가능성은 어디에 있는가?

## 풀뿌리자치 공동체운동과 새로운 세상<sup>2)</sup>

이 호(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연구위원)

### 1. 서로가 서로를 착취 않는 세상

후기산업사회는 여러 가지 특징으로 설명되고 있지만, 시기적으로는 신자유주의 등장 및 그 광풍이 세상을 압도하는 현상과 동시에 우리에게 다가왔다. 이러한 세상의 특징은 모든 것을 분리시키고 분열시킨다는 것이다. 노동계급을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으로 분리시킨다. 그뿐만이 아니다. 여성들이 주로 전담하곤 하는 돌봄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상도 더욱 심화시킨다.

어디 여성들의 돌봄노동뿐이겠는가? 이 세상에 자기 자리에서 노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던가? 하지만,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조차 노동하는 사람을 임노동자로 국한시킨다. 이러한 임노동 중심의 사회구조분석은 임노동자가 아닌 노동을 하는 사람(주부, 학생 등)들을 임노동자에 기생해 살아가는 존재로 역시 분리시킬 뿐이다.

이러한 분리는 단순한 분리가 아니라 차별적 분리를 가져온다. 한정된 파이 중 자신들이 보다 많은 파이를 갖기 위해 서로 싸우게 만든다는 것이다. 너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본다고... 내가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네 것을 줄이고 내 것을 늘려야 한다는 경쟁이 모든 사람들의 삶을 좌우한다. 이는 이제 대부분 사람들 DNA에 깊숙이 각인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사람들은 자신들이 겪는 고통을 ‘우리’의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보다는 내 고통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고통이 커지는 것이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인다. 세상은 ‘만인에 의한 만인의 경쟁’으로 채워졌고,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도록 강요한다. 많은 이들이 현대 사회가 ‘각

---

2) 원래 주최 측에서 제시한 발제문의 주제는 “풀뿌리자치 공동체운동과 새로운 나라”입니다. 여기서 ‘나라’는 우리가 흔히 아는 ‘국가’가 아니라, 고대 부족공동체 협의체를 상징하는 순우리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그렇듯이, 저도 이 말은 아무래도 근대적 ‘국가’라는 의미로 더 친숙합니다. 풀뿌리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원래의 말 뜻과 ‘풀뿌리 자치공동체’가 동의반복이라고 생각하기에, 그보다는 풀뿌리 자치공동체운동이 우리 세상을 대안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과제를 지닌다는 의미로 제목을 수정해 정했습니다.

자도생(各自圖生)'의 개별화에 우려를 표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지금은 각자도생이 아닌 경쟁이라는 수레바퀴를 매개로 다른 사람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다.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내가 살아남는다는...

참 아이러니하다. 경쟁에서의 승리로 뭔가를 얻기 위해 평생의 삶을 희생해야 한다니... 언제쯤에야 우리는 이 경쟁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아마도 죽기 직전에야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우리는 평생을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희생해야 하는, 평생을 손에 잡을 수 없는 뭔가를 위해 희생해야 할 텐데 말이다.

물론, 우리들 중의 극히 일부만이 최종 경쟁에서 승리해 성공을 보장받곤 한다. 최근에 이들은 우리 사회 구성원의 1%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들은 소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 1%에 들기 위해 우리의 모든 노력과 시간을 투자한다. 그 투자가 희생인 이유는 우리 중 99%가 그럼에도 최종 승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오직 1% 만이 그러한 투자로 인해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니 나머지 99%에게는 그러한 경쟁에 자신을 온전히 집어넣는 삶이 희생으로 점철된 것일 수밖에 없다.

이렇듯 모든 것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기보다 분리시킴으로써 지탱하는 우리 세상은 여성과 남성을, 성인과 미성년자를, 잘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인간과 생태 환경, 도시와 농촌 등을 상호 적대적 관계로 분리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적대적 분리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숨결을 교환하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존재로 서로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관계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그리고 나 또는 우리 편의 풍요를 위해 너 또는 상대방에 대한 착취를 정당화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비하며 살아가는 것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이 세상 어딘가에 서 그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을 착취한다. 우리가 인식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우리 스스로도 그 착취의 고리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어쩌면 우리의 일상이 착취에 의해 유지되는 것은 아닐까? 비록 우리는 그럴 맘이 추호도 없을지라도...

우리의 '원죄'는 우리가 그러한 착취의 순환고리 속에 놓여있는 것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이러한 착취와 피착취의 순환고리를 벗어나, 그 원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자립'의 삶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최소한 자립은 타자에 대한 착취를 전제로 한 삶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당장 조그만 것이라도 자립을 위한 실천을 준비하고 실행해야 한다.

## 2. 자립과 공동체는 폐쇄적인가?

우리가 착취와 피착취의 관계를 벗어나기 위한 자립의 문제를 고민하고 실천한다는 것은 각자도생으로 환원하지는 것이 아니다. 아무래도 ‘자립’은 남과의 관계를 끊고 홀로 살아간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문제를 개별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는 그러한 착취-피착취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없다. 각자도생의 원리야말로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러한 관계를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없이 각자 살아간다는 것은 남의 고통을 나와 무관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대안으로 이야기하는 ‘자립’도 ‘나’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자립은 공동체를 통해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 유행처럼 번지는 ‘마을’ ‘공동체’는 바로 이러한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욕구에 근거한다. 그런데, 이 공동체라는 용어 또한 많은 오해를 낳는다. 그것은 공동체를 그 구성원 간의 긴밀한 관계로만 파악하려는 경향 때문이다. 이는 공동체를 폐쇄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실상 자립과 공동체는 폐쇄성을 통해 실현 가능한 듯 보인다. 하지만, 공동체는 단순히 그 구성원들의 폐쇄적인 관계망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공동체를 보다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구현해야 할 것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근린지역 주민들 간의 안면성과 긴밀한 관계 및 공통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일차적으로 중요시 한다. 이는 미국의 힐러리라는 학자가 공동체라는 개념들 속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세 가지 요소를 지역성(locality),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 공통의 유대(common tie)라 설명한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런데 100년 이상의 공동체 실험을 성찰해 온 현대공동체주의자들은 우리의 통념과는 다른 성찰의 내용을 이야기한다. 그것은 특정한 공동체가 속한 사회가 공동체적이지 않다면, 결국 그 사회에서 공동체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우리가 농촌지역에 생태공동체를 만들고 자립의 삶을 살려고 해도, 우리 사회가 그러한 노력을 수용할 수 없다면 이 또한 한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도시농업을 통해 일부분이라도 자립의 삶을 실천하려 해도, 우리 사회가 그리고 세상이 기본적으로 농촌에 대한 도시의 착취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저 자족적인 것에 그칠 것이다.

물론, 공동체가 다른 사회적 대안 이론에 비해 강력할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살고

싶은 사회의 대안적 모습을 가지적으로 구현한다는 것이다. 즉,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할 수 있다는 구체적 근거를 가지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실천과 노력을 폄하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하지만, 그 자체로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는 솔직히 의문스럽다. 초기 그리스도교 수도공동체도 그러했다. 하느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구체적으로 구현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 수도공동체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오늘날 수도공동체 자체가 하느님 나라를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씨앗이라고 할 수 있을까? 수도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또 다른 구분을 만든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자립은 남과는 무관하게 내가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고 충족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립의 근거로 건설하고자 하는 공동체도 그 구성원들만이 만족하는 그러한 폐쇄성에 머물 수 없다.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과정으로서의 공동체가 과거의 촌락 공동체를 오늘날 다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자립과(의) 공동체는 ‘나’를 넘어 ‘우리’로, 그리고 소수의 ‘우리’를 넘어 세상과 긴밀히 소통하고 변화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개방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자립의 가치, 공동체를 실현하려는 노력은 ‘사회운동’으로서의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 사회를 세상을 끊임없이 변화시키려는 ‘사회운동’으로 ‘자립’과 ‘공동체’를 설정하는 것이야 말로 ‘자립’과 ‘공동체’를 현실에서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현대공동체주의자들이 성찰한 내용이기도 하다.

### 3. 나와 우리를 더 넓은 세상과 연결시키는 풀뿌리운동 과제

풀뿌리운동은 풀뿌리 즉 소위 ‘민초’들이 주체가 되는 사회운동이다. 이 풀뿌리운동은 지역사회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주민들을 그 운동의 주체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운동이기도 하다. 그러자니 풀뿌리운동은 보다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일차적 과제로 삼는다. 자립이든 공동체든 간에 그것이 아무리 정당하고 우리 사회의 대안이자 희망이라 해도 사람들이 이에 동참하지 않으면 허공을 맴도는 메아리일 뿐이다. 그런 점에서 풀뿌리운동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참여, 이를 통해 대안을 실현할 수 있는 역량 강화, 그 대안을 사회적으로 확산·강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 강화를 중요한 지향으로 삼

는다.

풀뿌리운동이 일차적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목표로 삼는다는 것은 풀뿌리운동의 의제가 주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것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더 이상 당위나 명분으로 참여를 결행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일상의 자기 이해를 가지고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다보니 풀뿌리운동은 각 사람들의 개별적 이해에 민감하다.

그런데, 개별 사람들의 이해에 민감하다는 것이 이들의 분절된 이해 하나하나를 모두 충족시켜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풀뿌리운동은 각 개인들의 분절된 이해를 ‘우리’의 이해로 변화시키는 것을 통해 시작된다. 그래야 그 속에서 역량의 강화든 영향력의 강화든 하는 것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풀뿌리운동에 있어 공동체는 중요한 실천적 개념이다.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나’의 이해를 ‘우리’의 이해로 변화시켜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풀뿌리운동은 공동체인 마을을 형성하고 강화하는 것을 중요시 한다.

풀뿌리운동에 있어 공동체가 특히 중요한 것은 참여 집단들이 공동의 이해를 실현하는 것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풀뿌리운동은 참여 집단들의 내부 운영에 있어서도 풀뿌리적이어야 함을 강조한다. 풀뿌리적 운영방식이라 함은 그 구성원들 간 민주적이고 평등한 관계, 상호 긴밀한 소통 등을 의미한다. 즉, 특정 지도자에 의한 수직적 관계가 아닌 구성원들 각자가 주체적인 참여와 역할을 수행하고, 그 모임의 주인으로서 위상과 역할을 하도록 강조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어떤 이들이 다른 이들을 대변하는 활동은 풀뿌리운동의 주요 전략에 전면적으로 위배된다.

또한 풀뿌리운동은 무엇에 반대하거나 요구하는 등을 넘어 대안을 실천하는 것을 중요시 한다. 그런 점에서 풀뿌리운동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고 싶은 대안적 사회의 모습을 공동체를 통해 가시적으로 구현하고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공동체는 당장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완결된 어떤 모습을 지니는 것도 아니다. 그러한 지향을 갖고 그 과정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공동체주의자들의 성찰 또 한 가지, 공동체를 만들고자 한다면 그 수단과 방법도 공동체적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풀뿌리운동은 그러한 공동체적 운영원리를 참여 집단들 속에서 서서히 구현하고자 한다.

그런데, 풀뿌리운동의 이러한 실천 방법과 그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들은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것은 이해가 맞는 사람들이 모여 그 이해를 실현하는 조그만 활동들이 어떻게 전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한편

수긍되는 면도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비판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수긍되는 면은 풀뿌리운동이 특정 이해에 대한 공감대를 통해 전개된다는 점과 관련이 깊다. 그러다보니 우리 사회 또는 세상의 대안으로까지 참여자들의 이해를 확장시키는 일이 그리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편이다. 하지만, 온 우주의 모든 요소가 한 사람 안에 담겨있듯이, 세상의 모든 문제도 지역에서 구체적인 생활의 문제로 발현된다. 따라서 현재 풀뿌리운동이 전격적으로 대안을 이야기하고 이를 실현하는 모습을 보이기에 지나치게 더디다 해서, 그러한 가능성이 없다 비판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 문제는 풀뿌리‘운동’의 과제라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주민들이 집단적인 참여를 통해 개인의 이해를 우리의 이해로 공감대를 만드는 과정은 일차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다. 참여자들의 이해에 대한 공감대가 결국은 우리 세상의 대안이라 할 수 있는 자립과(의) 개방적 공동체로 나아가는 과정도 당위와 명분 주창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보다는 이들의 이해가, 이들의 공감대가 그 외연을 확대하는 과정을 통해 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다 가능하다. 즉, 내가 이웃한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이웃한 이들의 욕구에 대해서도 조금씩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만드는 것이 풀뿌리운동의 과제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풀뿌리운동이 진정으로 세상을 대안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되기 위한 필수 요소는 바로 네트워크다. 지역사회로부터 시작하는 네트워크가 이 세상의 문제를 조금씩 하나씩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공동체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기 위해서는 그 폐쇄성을 박차고 나아가 세상과 교류할 필요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는 공동체들 간의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가는 과정 즉 운동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특정한 공동체가 가진 이해를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만나게 해 주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을 만들 수 있다. 이는 공동체가 다양한 사회의 대안적 가치들을 자신들의 가치로 내재화하는 과정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또한 이는 조그만 지역에서 공동체를 건설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세상을 대안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힘으로 전이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오래전 어떤 일본 생협 역사에 관한 책을 본 적이 있다. 생협에 참여하는 주부들은 자기 가족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탁에 대한 욕구로부터 출발했다. 하지만, 반 모임에서 함께 수다를 떨면서 그 수다의 주제가 점점 확대됐다. 어떤 조합원 자녀의 왕따 문제로부터 시작해 대기업의 마트가 생협 인근에 입점한 문제 등으로... 이는 조합원들의

이해가 점차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제들로 확대되는 과정이기도 했다. 결국 그 책의 마지막 부분은, 애초 자기 가족의 먹거리에 대한 관심으로 생협에 참여한 주부들이 일봉에 입항한 핵 항공모함 앞에서 반핵 시위를 벌이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으로 끝난다. 풀뿌리운동이 지향하는 과정은 바로 그런 것이다.

공동체에 있어서도 이는 마찬가지다. 공동체가 지나치게 그 이상을 강조하는 것으로는 대중들이 쉽게 참여하기 힘든, ‘좋기는 좋은데’ ‘나와는 너무 먼 당신’ 같은 존재로 치부된다. 그래서 공동체도 사람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자기 이해와 욕구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수준 높은 공동체가 처한 폐쇄성 극복의 문제처럼, 이러한 가벼운 공동체도 세상의 대안으로 자리나기 위한 과정을 과제로 안고 있다. 느리더라도 이러한 과정이 일어날 때 공동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4. 그래서 영성이 중요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세상을 변화시켜 주길 바란다. 아무래도 참여는 귀찮은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힘들여 그런 일을 하기보다는 누군가가 그 일을 해주길 바라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거에 그렇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좋은 사람을 선출해 그들이 그 일을 해주길 바란다. 하지만, 사람들은 또 안다. 그렇게 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의 대안이라 이야기하는 공동체를 매개로 한 ‘자립’은 ‘자치’를 통해 가능하다. 자치는 공동체의 기본적 요소이기도 하고, ‘자립’의 삶을 실현시키는 핵심적 수단이기도 하다. 그런데 자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자치의 능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자치는 누가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자치 역량이 없으면 자치가 이루어질 수 없다. 자치의 역량이 강화된다고 하는 것은 참여와 자치의 경험을 통해 훈련되고 내재화되는 것이다. 기타를 치면서 기타를 배우듯이...

그런데, 이 과정은 아무래도 많이 귀찮다. 그리고 이 과정 역시 지속적으로 향상되어야 할 무엇이다. 우리는 그 완벽한 모습을 상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영성 또는 견성(見性)이 필요하다. 이 영성 또는 견성에 대한 정진이 없다면 그간 사회운동이 빠졌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 함정이

란, 외부 세계를 변화시키려는 열정이 넘치지만 정작 자신은 변화되지 않는 문제를 말한다. 풀뿌리운동에서 참여자들의 역량과 영향력을 강화한다는 것도 실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능력만이 아니라, 영성적 깊이를 더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영성 또는 견성의 기본은 나와 이 우주가 또는 나와 신의 존재가 분리된 둘이 아니라 긴밀히 연결된 하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는 서구로부터 도입된 존재론적 세계관을 극복하고 관계론적 세계관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이에는 자연생태계와 내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인식 등 모든 이분법적 구분을 거부하는 일체가 포함된다. 이를 전일적 세계관이라 칭하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지향의 사회운동에 있어서 영성의 핵심적 내용은 세상(사회)의 변화와 나의 변화, 그리고 내가 속한 집단의 변화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내공의 깊이는 그에 한참 못 미친다. 이런 이야기를 주저리주저리 해대는 나 어찌면 우리 스스로도 그 내공의 깊이가 천박하다는 것을 부인하기 힘들다. 그래서 영성 또는 견성도 마찬가지로 끊임없는 정진, 즉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중요시 한다. 그래서 새로운 대안적 '나라'를 만드는 일은 자치를 통한 자립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리고 이를 세상과 긴밀히 관계 맺도록 하는 것에서만 그칠 수 없다. 그 과정을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그 과정을 통해 대안적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함께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요즘 영성에 대한 관심이 많다. 내가 현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립과 내가 행복하게 소속될 수 있는 공동체는 내 영성의 내공에 비례할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찌면 그 내공의 정도만큼만, 딱 그만큼만 내가 세상을 대안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내가 풀뿌리운동을 하고 이를 강조하는 것은 그 과정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게 초청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도반(道伴)이라 하던가? 보다 많은 도반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풀뿌리운동이라 할 수 있다. 그래야 세상이 변화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 탈성장 시대, 자립적 삶과 새로운 나라<sup>3)</sup>

정규호(모심과살림연구소 소장)

### 1. 성장위기 시대, 어떻게 볼 것인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사망 사건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온 사회가 들끓고 있다. 2011년 산모들이 원인 모를 급성폐질환으로 사망하면서 문제가 된 이 사건은 현재까지 산모와 아이들을 포함해 총 239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문제의 당사자로 지목된 가해 기업들은 그동안 사과논쟁법적인 다툼을 벌이면서 시간을 끌고 책임을 회피해왔다. 여기에는 대학교수와 대형 로펌, 무책임한 관료들도 공모자로 참여했다. ‘위생’과 ‘건강’을 내세우면서 생명을 죽이는 물질을 안방까지 침투시킨 ‘돈’의 무서운 위력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누군가는 이 사건을 안방에서 벌어진 세월호 참사라고 한다. 2년 전 어린 학생들을 포함해 304명이 목숨을 잃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생명과 안전을 소홀히 한 채 돈과 이윤을 좇아온 우리사회에 대한 통절한 반성들이 있었다. 세월호 참사 ‘전’과 ‘후’로 우리 사회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들도 쏟아져 나왔다. 생명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이것을 위해 참사를 잊지 말고 진실을 반드시 찾아내자고 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 참사의 진실에 대한 접근을 가로막고, 사망 학생들의 흔적을 치우고, 우리의 기억에서 지워버리려는 조직적인 움직임들을 분명히 목격하게 된다. 그런데 이들이 내세우는 논리가 바로 ‘경제 살리기’다. 이미 벌어진 끔찍한 사건을 자꾸 되새겨서 사람들의 심리를 위축시키면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그 부담을 국민 전체가 지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와 의료기관의 초기대응 실패로 국민 16,752명이 격리되고 186명이 감염되어 결국 38명이 목숨을 잃은 작년의 메르스 사태 때도 정부와 정치권, 재계, 언론 일각에서 ‘경제 살리기’를 위해 속히 일상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경제를 살린 후로 미루는 동안 돈의 위력 앞에 생명들이 위태위태하다.

---

3) 정리가 덜 된 상태의 글입니다. 의견을 듣고 더 숙고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 보다 더 중요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경제 살리기 골든타임’을 외치면서 밀어붙이는 노동개혁과 각종 규제완화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더구나 지금은 선성장(先成長), 후분배(後分配), 후보존(後保存), 후안전(後安全)의 논리 자체가 설득력을 잃고 있는 시대다. 성장 자체가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파이(pie) 키우기’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무한성장, 고도성장의 신화와 완전고용과 물질적 풍요에 대한 기대는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여기에서 ‘여적효과’(trickle down effect) 자체도 불평등과 양극화의 확대로 믿음을 상실했다. 불안정한 상태에서 상대적 박탈감으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의 인내나 기다림을 요구할 명분이 사라져 버렸다. 한마디로 ‘더 빨리, 더 크게, 더 많이, 더 높게’를 외쳐온 ‘성장 시대’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좌-우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근대 산업사회 전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다.

과학기술과 시장의 발달에 힘입은 성장을 바탕으로 한 진보와 발전의 개념도 바뀌어야 한다. 성장의 위기는 근대 국가와 민주주의 자체에도 균열을 내고 있다. 성장에 따른 이익은 소수가 독점하면서 그에 따른 비용과 손실은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돌려버리는 방식은 더 이상 지지받기 어렵다. 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그 책임의 칼날이 우파정권, 좌파정권 가릴 것 없이 기득권 집권세력으로 향하면서 정치적 격변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미국과 필리핀에서 극단적인 성향의 정치인에 환호하는 소위 ‘분노의 정치’ 현상도 이런 배경에서 등장하고 있다.

유한한 지구에서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이 무한한 성장을 믿고 거기에 의지해 온 근대문명은 지금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자유 경쟁을 통한 이윤 확보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불균형과 양극화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성장기반 자체가 도전받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제일 목적으로 해야 할 국가는 무능력과 무책임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기능적 분업에 기초한 직업적 전문가주의, 기술관료주의는 삶의 총체성을 파편화시키고 자율적이고 자립적인 삶을 가로막고 있다. 이로 인한 삶의 위기는 심각하다. 노동, 복지, 주거, 환경, 교육, 의료, 먹거리, 육아 및 보육, 안전 등 삶과 직결된 기본적인 요소들이 양과 질 모든 측면에서 위협받고 있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경쟁과 속도에 지쳐가고 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은 지금 상태의 연장선에서 희망을 기대하지 않는다. 근본적인 변화,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성장주의 시대가 만들어 낸 관성의 뿌리 또한 여전히 깊다. 경제성장제일주의, 결과중심주의, 속도주의, 개발주의, 물량주의, 공급주의, 소비주의에 중독되어 온 그동안의 관성은 생태계와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고 경제적으로도 결코 타당치 않는 상식을 벗어난 일들을 지금도 버젓이 만들어내고 있다. 문제는 성장주의 시대의 낡은 관성은 성장위기 상황에서 더 큰 부작용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 한 예로, 사회 전체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지자체도 인구 감소를 전제로 자신들의 미래를 설계하지 않는다. 2013년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들의 '2020 도시기본계획'에 담긴 인구예측들을 모아보면, 2020년의 총 인구가 6,155만 명에 이른다. 지금보다 인구가 23%나 증가한 수치다. 문제는 이런 잘못된(허황된) 인구예측을 토대로 각종 수요 분석이 이루어지고,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과잉투자, 중복투자, 난개발, 막개발 같은 터무니없는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전력수요 과대예측과 원전 확대 정책, 강에서 산으로 간 토건형 개발사업 등은 성장위기 시대에 더욱 치명적이다.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을 굳이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대한 물음(?)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해결 방향은 여전히 모호하다. 과도기적 혼란, 전환기적 혼돈 상황이다. 우리가 익숙한 채 의존하고 있는 환경과 구조, 시스템 전반을 되짚어보고, 확신에 차있던 기존의 지식과 신념체계도 되물어봐야 한다. 이미 현실 자체가 그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과 다른 전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특히 미래세대 청년의 눈에 비친 현실의 모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청년들은 '부모세대 보다 더 잘 살 수 있다'는 기대를 접은 최초의 세대라고 한다. 청년 5명 중 4명은 개개인이 열심히 노력해도 삶이 더 나아질 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한다. 청년들의 미래 설계에 부모 세대의 지식이나 경험도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지속적인 성장과 축적을 통해 과거 보다 더 나은 현재, 현재 보다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고 달려 온 직선적, 진화론적 발전논리는 설득력을 잃어버렸다.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정말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할 때다. 탈성장 사회를 향한 새로운 발상과 용기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 2. 탈성장 시대, '자립'에 대해 다시 생각하자

성장 시대의 한계가 분명해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탈성장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다. 탈성장은 여러 선택지 중의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게 생존하기 위한 길이다.

성장 패러다임의 틀로 보면 성장 동력이 떨어지는 저성장 상황은 커다란 도전이자 위기다. 해서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전의 성장을 회복하려는 시도들이 나온다. 하지만 국내는 물론 세계 전체가 성장침체 상태로 크게 바뀌고 있는데 성장주의 시대의 사고 틀로 지금의 상태를 지속시키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불행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는 다가올 성장 시대 ‘이후’의 사회를 제대로 준비하기 어렵다. ‘성장의 위기 또는 저성장 상황에 대한 대안 찾기’가 아니라 ‘탈성장의 새로운 사회를 향한 대안 찾기’가 필요한 때다. 탈성장 사회에 대한 분명한 전망을 가지고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탈성장 사회로 가는데 있어 많은 장벽과 해결 과제들이 놓여 있다. 지난 시절 국가주도의 고속성장체제를 이끌어 온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생태계 등 사회 전반의 자립 기반이 매우 취약해서 탈성장 사회로의 전환 비용 (transition cost)이 매우 높은 편이다.

경제적으로 무역의존도가 90%가 넘는 대외 의존형 경제구조에서 수출환경과 환율변동 등 세계경제의 변화와 충격에 매우 취약한 것이 우리의 경제 현실이다. 게다가 대외 의존형 수출경제 이면을 들여다보면 농업·농촌·농민의 희생과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희생, 노동자 노동의 희생이 자리하고 있다. 각종 개발로 파괴되어 간 생태계의 희생도 마찬가지다. 세계 10위권에 육박하는 경제규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식량과 에너지 자급률은 각각 23.8%(사료용 포함)과 3%에 불과할 만큼 생태학적 자립기반 또한 취약하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권력과 부를 집중시켜온 공간적 불균형은 수도권 외 지역의 자립과 자치 기반을 취약하게 만들었다. 중앙 집중형 정당정치도 여기에 중요하게 한 몫 했다.

결국 탈성장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의존형 체제를 자립형 체제로 바꿔내는 노력이 중요하다. 자신의 문제를 누군가가 대신 해결해 주기를 바라거나, 외부의 자원과 힘을 빌려서 해결하려던 기존의 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의 발전 모델을 ‘따라잡기’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과 생활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내발적이고 순환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자립’은 경제의 세계화와 생태위기의 지구화로 인한 충격을 흡수하고 완화시키기 위한 완충영역(buffer zone)을 만들고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높이기 위한 핵심적인 과제다. 나아가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서 자립 기반을 다양한 영역에서 만들 필요가 있다. 마침 우리사회 곳곳에서 ‘우리 삶과 직결된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해 보자’는 움직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자율(自律), 자치(自治), 자립(自立), 자생(自生), 자존(自尊), 자양(自養), 자작(自作) 등 ‘스스로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성장 시대의 종언이 빈곤과 결핍으로 이어지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립적 삶의 영역을 다양하게 찾고 만들어서 탈성장 사회를 향한 전망을 구체화시켜나가야 한다. 이와 관련한 주요 방향과 과제들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삶의 외주화’(life outsourcing) 시대에서 ‘자기 부양’(self-help, self-care) 시대로 방향을 바꿔내야 한다. 자신의 삶을 다른 곳에 맡기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힘을 길러내야 한다. 이것은 의존적 삶에서 주체적 삶으로의 전환을 말한다. 물론 자립(自立)과 고립(孤立)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삶의 모든 문제를 개인 혼자서 다 해결할 수는 없다. 다른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도움을 주고 나누며 살아가야 한다. 물론 관계 맺음과 역할에 있어 당사자의 자율성과 자기선택은 중요하다.

사람은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좋은 관계를 통해 자립적 삶을 영위해 나갈 때 온전한 자유를 느낀다고 한다. 하버드대학의 한 연구에서 1939년부터 75년간 관찰한 결과 정신과 육체를 포함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가장 필요한 요소로 ‘좋은 관계’(good relationship)를 지목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개인의 고립과 불안, 경쟁을 통해 오히려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야말로 지금의 신자유주의 속성이다.<sup>4)</sup> 자본의 자유, 경쟁의 자유로 삶을 억압하는 상황에서 개별화 된 소비자가 가지는 선택의 자유는 함께 협동해서 만들고 나누고 베풀고 배우고 치유하고 돌보는 능력들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이점에서 자립은 사람들로 하여금 상호 연결된 존재로서 자기 주체성을 올바르게 자각하게 하는데 중요하다.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누군가의 희생과 불행을 대가로 하는 삶의 방식은 더 이상 지속가능할 수 없다. 자기 몫의 필요노동을 타인에

---

4) 이 부분은 <심리정치: 신자유주의의 통치술>(한병철 저, 김태환 역, 2015, 문학과지성사)의 문제의식을 참고하였다.

게 전가시키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는데서 자립적 삶이 출발해야 한다. 약은 약사에게, 병은 의사에게, 교육은 교사에게,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기는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같은 논리로 먹거리와 식량 문제도 농민들의 역할로만 돌릴 수 없다. 그만큼 생산과 분리된 소비주의의 한계를 극복해가는 데 있어서도 자립의 역할은 크다.

둘째, 지속가능한 관계를 통해 신뢰의 기반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예전보다 물질적으로 더 풍요롭고 편리해진 세상에서 지식과 정보는 넘쳐나는데 사람들은 외로움과 불안감을 더 느끼고 있다. 사람들은 자기 주체성을 잃어버린 채 수없이 쏟아지는 정보와 촘촘하게 설계된 시스템 속에서 묻히고 잊혀지고 있다. 뿌리 뽑힌 채 떠돌아다니고, 스쳐지나가는 수많은 만남들 속에서 지속적인 관계 맺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휘발성 사회, 매몰성 사회는 소위 다이내믹 코리아(dynamic korea)가 보여주는 또 다른 얼굴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중심을 잡고 이웃을 살피고 미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긴 호흡으로 무언가를 준비하고 실천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자립은 신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관계를 지속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셋째, 체질 변화를 위한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경제적 측면에서 90년대 말 우리가 경험했던 IMF 외환위기가 급성질환이라면 지금 당면한 저성장 상황은 만성질환에 가깝다. 우리사회 전반의 문제들이 구조적인 특성과 맞물려 누적되어 온 것이 세계경제의 변화와 맞물려 나타난 것이 지금 당면한 문제다. 따라서 특별한 정책적 처방으로 단숨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성장위기가 가져올 새로운 환경에 대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사람이 아플 때 약을 먹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심할 경우 외과적 수술을 받기도 하는데, 잘못된 생활습관이 누적된 데 병의 원인이 있다면 근본적인 치유를 위해서는 습관을 바꾸고 체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리 현실의 문제로 돌아와 보면, 지난 시절 성장주의 시대가 만들어 낸 각종 요인들이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면 결국 해결 방법은 그 익숙함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는데서 찾아야 한다.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소위 ‘다이어트’ 전략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물질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은 물론 정신적(영적) 측면의 다이어트도 해당된다. 그리고 이 다이어트 전략의 최종 목적은 성장에 대한 깊은 중독과 의존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삶의 주체로서 자립적인 삶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을 찾는 데 있다.

넷째, 자립적 삶을 지탱시키기 위한 커뮤니티 전략이 필요하다. 성장위기로 인한 충격은 지역의 구체적인 생활 현장에서 삶의 위기로 나타난다. 자립적 삶을 지탱시키기 위한 커뮤니티 전략이 필요한 이유다. 지역은 생산-소비-여가-생활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삶의 터전이자, 개인과 사회를 이어주는 곳이다. 따라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자립적 삶의 기반들을 촘촘히 엮어서 전환의 거점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사람과 자본, 자원, 정보 등이 지역 내에서 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내부화 전략을 통해 지역 자립의 기반을 확충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이것은 단순한 거래비용 줄이기 차원을 넘어서 사회-공간적 신뢰 관계를 만들어 운명공동체로서 책임을 함께 만들어가는 일이다. 구체적으로 살림살이가 이루어지는 지역의 생활영역에서 지역 자원(에너지, 광물, 물, 식량 등)을 지혜롭게 활용하면서 의식주와 의료, 교육 등 삶의 기본 필요들에 대한 지역의 자급력을 높이고, 지역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공공재를 공동생산하고 공유가치를 창출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섯째, 민주적인 방식으로 자립을 향한 전환의 전략을 펼쳐나가야 한다. 성장이 한계를 맞게 되면 생존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사회적 불신과 갈등도 커지게 되고, 이것을 빌미로 권위주의가 등장할 가능성 또한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민주주의 문제는 탈성장 전략에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민주주의의 핵심이 당사자들이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데 있는 만큼, 자립을 실현하는 방식 또한 민주적이어야 한다. 관련해서 제도적인 정비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스스로 독선과 독단에서 벗어나야 한다. 근대적 경험주의가 한계를 보이고 있고 기존의 고정관념 자체가 도전을 받는 상황에서 자기 확신의 오류를 극복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향한 매우 중요한 노력이다. 따라서 탈성장 사회에 대한 전망은 성찰적 개인들의 집단지성을 발휘하는데서 찾을 필요가 있다. 예전 같으면 앞서 눈 뜬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따라가도 되지만, 지금과 같은 대중사회에서는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를 비유로 들자면, 가급적 다양한 구성원들이 대화에 참여하도록 하고, 참여자들은 용기를 내서 각자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정확하고 솔직히 말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상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경청의 자세로 대화에 참여해서 공통의 지혜를 모아가는 노력이 어우러져야 한다. 탈성장 사회로 가는 민주주의 전략은 외부의 권위적 힘을 빌리지 않고 당사자들이 주체가 되어 서로 만나서 배우고 나누면서 삶의 자립기반을 만들어 가는데서 찾을 수 있다.

### 3. 자립적 삶을 위한 '새로운 나라'에 대한 전망이 필요하다

성장의 위기가 곧 탈성장 사회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미래는 복수형이고 대안은 열려있는 만큼 기존의 가치나 체제로부터 '벗어나기'(脫)로는 한계가 있다. 벗어난 이후 열려진 상황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분명한 지향과 전망이 필요하다. 저성장, 제로성장, 마이너스 성장과 비교해 '탈성장'은 그 의미와 방향, 방식이 다르다. 탈성장은 '성장' 자체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다른 가치기준으로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을 모색한다. 따라서 전망과 전략이 없는 탈성장은 대안이 되기 어렵다. 탈성장을 통한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품은 '사회상'(社會相)에 대한 입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성장 시대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자립적 삶을 토대로 사회 총체적인 전망을 세워나가는 것을 '새로운 나라 만들기'로 부르고자한다.

사전적인 의미로 '나라'는 '국가'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나라'라는 말을 쓰려 한다. 그 이유로는, 첫째 지난 시절 국가주의와 성장주의를 강력하게 결합시켜 성장사회를 이끌어 온 '개발국가'(developmental state) 체제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점, 둘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는 기본적인 역할조차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지금의 국가에게 성장위기 상황에 대한 해결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 셋째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야 할 새로운 사회는 국가의 핵심 영역을 차지하는 기득권화 된 집단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삶의 주체들이 당사자로 나서서 스스로 지혜를 모으고 역량을 키우고 대안을 만들어감으로써 실현 가능하다는 점 때문이다.

성장주의는 획일적이고 일방적이고 폭력적이다. 탈성장은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풍요로운 사회를 지향한다. 따라서 대안의 성격도 자본주의 주류 사회에 대한 '대안적 경제', '대안적 사회'의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경제적 대안', '사회적 대안'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에 대한 대안'이 아니라 '~을 향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탈성장을 통한 새로운 나라 만들기의 핵심 과제 또한 대안의 영역들을 입체적으로 꿰어내는데 있다. 인간 삶의 영역을 기계적으로 분할할 수 없듯이 대안에 대한 모색 또한 총체적이고 유기적이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관련해서 몇 가지 영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새로운 나라로서 탈성장 사회에서는 노동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인

간으로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수준의 삶을 보장하되, 사적인 이윤추구 보다 공익적 가치실현에 기여하는 사람들의 노력을 사회적으로 더 인정하고 더 많이 지원함으로써, 사람들 스스로 자신들의 동기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산업사회의 노동통제 시대에서 과학기술의 발달과 인공지능의 적용으로 노동 자체가 배제되는 시대로 넘어감에 따라 자립적 삶에 있어 노동에 대한 접근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 즉 성장위기 상황에서 테크놀로지 실업 문제는 피할 수 없는 만큼, 공식 경제 영역에서 정규직 일자리 만들기의 차원을 넘어서서 일과 삶이 결합된 다양한 대안의 노동영역들을 적극 찾고 만들어 내야 한다. 관련해서 임금과 화폐를 중심으로 한 산업사회 노동에서 비공식부문의 그림자노동으로 취급되었던 부문도 살림노동의 영역으로 새롭게 살려낼 필요가 있다. 또한 기술 발달에 따른 노동시간 축소가 고용 감소로 가지 않고 여유 시간을 창조적 활동과 정신적(영적) 충만함을 통해 삶에 대한 가치와 생활양식을 새롭게 바꿔내는 방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또한 탈성장을 통한 새로운 나라 만들기에서 농업의 역할도 재평가 되어야 한다. 농업의 식량생산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이 외에도 농업이 가지는 사회, 경제, 생태적 역할은 성장위기 시대에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농업이 가지는 고용 창출 효과 또한 성장위기의 충격을 흡수하는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다양한 영역과 과제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고 실현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치와 경제 시스템 자체가 새로워져야 한다. 이것은 현존하는 정치, 경제 시스템에다 새로운 대안의 영역들을 결합시켜 전체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보다 정교한 설계와 추진 전략을 필요로 한다.

첫째, 새로운 나라 만들기를 위한 경제적 대안의 간략한 밑그림은 다음과 같다.<sup>5)</sup> 먼저, 사회적 기초가 되고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에너지, 교통, 물 등 기간산업 분야는 시장에 맡기기보다 '공공부문'에서 맡아서 수익성보다 공익성을 우선해서 공정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한편, 의식주, 교육, 의료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 관리와 관련해서는 관련 당사자들이 경영과 노동, 이용에 민주적으로 참여하여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은 '협동조합 경제' 영역이 담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순환 경제 영역의 확대

---

5) 이 부분은 <자본주의를 넘어>(다다 마헤슈와라난다 저, 2014, 도서출판 한살림)에서 소개된 '프라우트' 모델에서 시사점을 얻었는데, 더 보완이 필요하다.

도 필요한 일이다. 나머지 ‘일반 시장경제’ 영역에 대해서는 사회책임투자(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ing),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 회계 감사, 지역공동체 투자(community investing) 등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을 높이고, 소규모 자영업과 가족단위 개인사업체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공식 경제’ 영역에 속해 있는 무보수 자원 활동, 육아와 가사노동 같은 돌봄과 나눔 활동 영역, 수작업과 메이커(maker) 영역 등은 지역 차원에서 대안의 경제 영역으로 활성화시킴으로써 삶의 자립 기반을 지원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둘째, 새로운 나라 만들기에서 정치적 대안도 매우 중요하다. 정치는 한 사회의 권력과 자원, 정보의 흐름과 배분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득권 정당들이 보여주는 현실의 선거 정치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4-5년 주기로 치러지는 선거를 통해서는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사회 전반의 총체적 전환을 만들어내기가 어렵다. 이점에서 기성 제도 정치의 한계를 보완하고 새로운 변화를 촉발하는 차원에서 대안정치 영역으로서 시민의회 즉 ‘민회(民會)’를 구상해 볼 수 있다. 민회는 선거 정치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사회 전체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시민사회와 소통을 통해 핵심 의제를 공론화함으로써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요즘 이야기되는 중간지원조직과는 성격이 매우 다르다.

우선, 지역 차원에서는 지방의회와 별개로 경륜과 신망을 갖춘 사람들로 시민의회를 구성해 지역주민과 지방의회, 지자체 상호간의 소통을 매개하고, 개발욕구의 즉자적인 해결을 넘어서 지역의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고 성숙된 여론을 모아내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민회가 신뢰를 바탕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넘어서 도덕성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지역주민들의 직접 선거로 뽑는 방법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 차원으로,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책임있게 고민하고 준비하는 (가칭)‘미래위원회’ 같은 단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출 및 임기 구조와는 별개로 헌법에 의해 보장된 정치적으로 독립된 기구로서 미래위원회의 위상을 두고, 국민투표를 통해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 지도자들을 위원으로 선출해 임기를 보장하고, 예산도 별도로 편성하고 조사·연구 기능도 부여함으로써, 정치적 당파성과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미래위원회의 핵심 역할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주요 방향과 전략 및 핵심 과제들을 조사하고 발굴해서 교육과 홍보, 의견수렴 등 다양한 소통과정을 거쳐 바람직한

미래사회로 가기 위한 기본 방향과 핵심 내용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데 있다. 이처럼 지역과 국가 차원에서 시민정치 공간이 건강하게 자리 잡게 되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갈등과 분열로 피로감을 증폭시키는 제도정치의 지형도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다.

#### 4. 생명운동의 자기 성찰과 역할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

생명운동의 범주에는 생명공동체, 생명협동, 생명평화, 생명문화 등 다양한 영역들이 포함된다. 생명운동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 개체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생명 본성에 맞게 생존해 나갈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에서부터, 유기적 상호의존성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서로 살림의 관계를 만들고 실현해가는 노력, 나아가 전일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가치운동, 영성운동까지 그 차원이 다양하다.

생명운동이 지향하는 가치와 내용에는 오랜 인류의 경험과 지혜가 담겨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운동 양식으로서 '생명운동'이란 이름을 가진지는 약 30년 정도 된다. 그동안 생명운동은 주류의 사회운동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도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진 흐름들을 만들어 왔다.

그런데 오늘날 '생명'은 생명운동만의 고유한 의제가 아니다. 이 글의 시작점에서 짚었듯이 최근 들어 수많은 생명들을 순식간에 죽음의 위기로 내모는 각종 사건, 사고들이 빈발하면서, '생명'은 사회의 중심 의제로 등장했다. 생명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사회의 절박한 요구와 함께 '생명'이란 말은 각종 정책과 제도, 사업, 교육, 사회실천 활동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물론 생명에 대한 이런 높은 관심은 생명운동 차원에서도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변화들이 생명운동 영역에 던지는 질문도 만만치 않다. 더구나 성장위기 시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탈성장 전략을 펼쳐나가는데 있어서도 생명운동 스스로의 역할을 되짚어 볼 때다.

세월호 참사에서부터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이르기까지 자본과 권력의 폭력성과 무책임성을 온 몸으로 경험하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불안과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참혹한 현실에서 생명운동은 그동안의 역할에 대해 스스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개발과 파괴에는 신을 능가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능

력은 갈수록 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명운동이 그동안 애써온 현장의 활동들은 현실의 변화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고 있는가?

혹시나 각자 자신의 영역 활동에 집중하면서 사회 전체적인 변화, 나아가 체제적인 전환에 대한 고민과 준비를 소홀히 해오지는 않았나? 주류 사회운동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스스로를 비주류의 영역에 안주시켜오지는 않았나? 전일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생명운동이 각자의 활동에 매몰 되어 상호 교류를 통해 총체적인 전망을 함께 세우기보다 파편적으로 대응해 오지는 않았나?

생명운동이 표방해 온 가치를 현실의 구체적인 실천 양식과 모델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함으로써 가치와 현실의 괴리 속에서 오히려 지금은 가치 자체가 근본적인 도전을 받고 있지는 않는가?

스스로의 활동을 돌아보기 위한 성찰적 질문은 우리사회 협동조합 운동 영역에게도 던질 수 있다. 특히 탈성장 사회로 가기 위한 삶의 자립 기반을 만드는데 있어 협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자본주의 초기와 성장기에 나온 협동조합 이론과 모델을 넘어설 수 있는 대안을 함께 찾을 필요가 있다.

살펴보면 지금까지 협동조합이 성장해 온 데는 성장경제 시대가 만들어 놓은 물질적 조건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성장경제와 함께 중산층이 늘어나고 소비주의의 확산과 함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시대적 환경은 우리나라 생협을 포함한 협동조합들의 성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그런데 앞으로 당면하게 될 성장위기 시대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환경으로 협동조합들은 많은 도전을 맞게 될 것이다. 생산자나 노동자 조합원의 소득증대와 소비자 조합원의 구매력 향상으로 협동조합의 성장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런데 성장위기의 상황은 다른 한편으로 협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더욱 높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개별화 된 삶의 불안감은 '협동적 생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오늘날 협동조합은 조합원 욕구(desire)의 충족을 넘어, 필요(needs)를 해결하고, 열망(aspirations)을 실현하는 다중적인 역할을 요청받고 있다. 특히 탈성장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조합원 욕구의 즉자적 해결을 넘어서 조합원을 포함해 사회 전체의 공동체적 관계를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 총체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먹거리, 돌봄, 안전 등 삶의 필요와 관련된 공공재를 공동생산 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따라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많은 협동조합들이 일자리 만들기과 사회서비스 제공 측

면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성장위기 이후 사회에서 삶의 자립을 위한 토대들을 튼튼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활동 영역들을 더욱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시장의 치열한 경쟁 체제에 진입해서 살아남기 위한 사업적 방식으로, 또는 공공의 책임과 역할을 민간영역으로 떠넘기기 위한 수단으로서 협동조합이 활용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삶의 대안을 만들어가는 협동조합의 역할을 주식회사와 대비해 설명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탈성장 전략을 통한 새로운 나라 만들기와 같은 총체적인 ‘사회적’ 전망이 협동조합 영역에도 필요하다. 자립에 기반한 사회적 전환에 있어 협동조합의 역할은 중요하다.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개념을 가진 영역들이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수식어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과 연결될 필요가 있다. 함께 만들어 갈 사회에 대한 전망이 분명치 않은 상태에서 프로그램과 사업들이 이루어질 경우 소위 말하는 ‘소셜 워싱’(social washing)<sup>6)</sup>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

6)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과 원전개발을 녹색성장으로 부르면서 녹색(green)의 의미를 이미지 세탁용으로 사용하는 행태를 그린워싱(green washing)이라 부르듯이,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도 ‘사회적’(the social)인 것이 가지는 본래의 의미가 축소되고 왜곡되어 다루어질 경우를 ‘소셜 워싱’이라 부를 수 있겠다.

토론 (기록)

<1부>

## 풀뿌리 자치 공동체운동과 새로운 나라

### 전진택

반갑습니다. 1월부터 대화모임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생평활동가대회에서의 대화 방식은 일방적 방식에서 벗어나서, 둘러앉아 작은 주제별로 돌아가며 이야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오늘은 시간상 제약으로 앞쪽에 모시고 편 갈라 앉듯 했지만 앞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찰과 영성이 배어 있는 대화문화 만드는 것도 생명운동이 시도해야 할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진솔한 경험과 살아온 지혜를 나눠 집단지성의 힘을 믿고 경험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호 선생께서 발제문 말미에 ‘더 많은 도반을 만들기 위해 운동하는 것이 풀뿌리운동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모인 모두가 새로운 나라, 문명,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꾸고 올 거라 믿고 각자의 길을 걷는 길벗들이라 생각합니다. 토론자 세 분의 소개와 이야기를 차례로 듣겠습니다.

### 박수영

원주에서 협동조합으로 도시락 만들고 학교 급식 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하고 있고, 이 이름으로는 3년째 되어갑니다. 지역 여러 단체가 컨소시엄 형식으로 만들었고, 지금은 독립해서 자기 영역 가진 회사입니다. 도시락, 쌀 배달하면서 생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업으로 친환경농업연합회 일을 합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 농과 관련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전국적 상황을 다 알고 있지는 않고, 변방에서 비주류로 살고 있는 저의 문제의식과 경험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른 견해가 있다면 이야기 나누면서 좁혀 가면 좋겠습니다.

대학원에서 사회과학 공부를 했는데, 논문을 준비할 때 지도교수에게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사회과학이 누구를 위해 복무해야 하나?’ 대학이라는 곳이 학문과 사상을 가르치고 전수받는 곳인데, 사회과학이 결국 근대 국민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것 아닌가, 그것을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학문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었는데, 교수는 ‘맞다’고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논리실증주의에 대해서였습니다. 논리실증주의는 하나의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일정 실험의 틀 안에 조작적으로 정의로 설명합니다. 내 가설을 증명하는 것이 논문 안에서는 참인데 밖에서는 참인가에 대한 질문에, 교수는 ‘참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대체로 참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가설과 검증은 좁은 틀거리 안에서 만든 것입니다. 두어 달 고민하다가 논문 쓰기 싫어 대학원을 포기했는데, 그 뒤에도 계속 우리가 하는 공부가 지식과 경험이 누구를 위해 복무되어야 하는가, 경쟁체제에서 살다가 한평생 마무리하는 게 서글프다는 것, 비슷한 맥락에서 다른 방법의 삶의 방식은 없을까를 고민했습니다. 협동조합 선택도 그런 맥락이었다.

최근에, 원주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원주 협동조합을 소개할 기회가 있는데, 그때마다 말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20세기 말 한국협동조합은 공생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 같다. 협동조합운동하면서 잘 경험을 못했지만 실제 협동조합에서 같이 늘어가는 조합원과의 관계는 ‘우애의 관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체로는 필요와 염원을 채워 나가기 위한 것에 국한된 활동으로 보고 동료의식을 넘어선 무엇이여야 하는가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런 협동조합이 있는가를 반문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곳에서도 아직 그런 수준이 아니지만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공생의 원리에 기초해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공생에서 한 단계 더 나간다면 ‘공경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공부모임을 하면서 이틀테면 ‘꽃 한 송이에 천지가 있고 우주가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데서 ‘공경’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협동조합을 자주관리 소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소공동체가 공생. 우애. 공경이라는 원리를 가져갈 때 다른 형태의 자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늘 딜레마는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은데 어디서 출발하는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지역에서 학생운동을 했는데 외부 세계를 바꾸려는 것이 기존의 운동이었다면 최근에는 나의 세계, 자아, 자기, ‘참나’라는 것, 과거에는 형이상학적이라고 생각해서 한쪽에 미뤄두었던 것들이 우리 운동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고, 이것들이 공경의 운동에 어떤 도움이 될지 하는 의문이 들고,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은 무엇인지, 무엇인가를 바꿔야

한다는 것 아닌 것에서 출발하는 운동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지역체 정당으로 지방선거에 대비하는 것을 지역 안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 의회나 단체장을 바꿔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정당을 하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각에서 출발해서 그것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갔으면 합니다. 실상 현실에서는 급한 사람도 천천히 가자는 사람도 있는데, 출발점이 어디여야 하는가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 신지에

제가 여기에서 나이가 쯤 어린 것 같은데 올해 만으로 25살입니다. 이 자리에 온 게 감사하고, 제 감량이 그만큼 되나 걱정됩니다. 20-30대 청년들이 느끼는 성장시대, 한국사회에 대한 고민을 같이 나누고 대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는 '서태지 세대'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당시 학교와 부모님께 반항하며 새로운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던 언니 오빠들이 있었고, 저도 그런 문화에 영향 받았던 건지 대안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는 역동성이 많이 일어났고, 두발자유운동, 촛불소녀로 불리는 세대였죠. 대안학교 다닌 후 4-5년 후 양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부모의 권유로 대안학교에 왔고, 당연한 진로처럼 선택하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청년이 되고 나서 새로운 시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 중앙일보에의 청년 3천명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답이 절반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았고, 나라가 망하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남에 청년 중심 이민 동아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태지 세대만 해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강했다면, 이제는 나아질 거라는 믿음이 청년들에게서 깨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 암울하지만 해방적 파국을 맞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성장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청년들에게서 대안을 찾을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민 가고 싶어도 못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 남아 할 일을 찾자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그래서 더 와닿는 말이 '자공공(自共公)'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다녔던 대안학교에서 중심 가치 중 하나였는데, 자조(自助), 공조(共助), 공조(公助), 자신을 돕고 서로 돕고 공공성을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시작했던 게, 지역을 기반으로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청년단체였고, 지금 3년째 되었습니다. 청년들에게 중요한 건 기술과 인문학이라는 생각으로 함께 배우면서 일하는 지

역공동체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한계도 있고 문턱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사회의 변화가 공동체나 좋은 동료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포구 망원동에 부흥주택이라는 낡은 주택이 있는데, 600평되는 땅에 어르신들과 비둘기, 고양이들이 함께 사는 집입니다. 80년대부터 재개발 논의가 있으면서 어르신들이 싸우며 쫓기며 살고 있습니다. 20-30년 동안 자본의 가치로만 재단돼 투자하기 위해서 집을 사는 현상들을 보면서, ‘재개발’이라는 것은 단순히 청년단체, 지역공동체, 협동조합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나라가 해결 할 문제, 공공이 해결 할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은 녹색당에서 정치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기간에도 많이 들었던 질문이 ‘녹색당이 다른 정당들과 가장 다른 점이 뭐냐’라는 것인데, 성장에 대한 문제제기를 정책으로 처음 한 정당이라는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성장 시대, 탈성장 시대를 맞이하면서 그 속에서 국가가 어떤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가. 공공의 영역을 만들어나가는 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도 안 되는 지지율은 시민사회 영역과 저희 세대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개인적으로 시민운동의 동력이 좀 떨어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40~50대 중심의 시민단체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한계들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동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무위당 선생님의 글을 잠시 읽으며 왔는데, ‘기어라’,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따 먹어라.’ 이런 말들이 시민단체, 풀뿌리 자치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핵심 가치가 아닐까 합니다.

기어라, 땅을 살살이 훑으며 가라. 기다려라, 하지만 기다리는 그 순간 바람에 지지 않고, 비에도 지지 않고 가는 독심과 마음, 그 길을 함께 가는 동료들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자치운동과 풀뿌리운동을 이어나갈 다음 세대로서 많은 선배 분들의 말씀을 잘 듣고 다른 청년 친구들과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필구

오늘 발제문을 쓰신 세 분의 말씀은 대략 생명과 평화라는 가치를 가지고, 자치와 협동이라는 원리를 통해서, 지역에 기반한 공동체적 사회를 어떻게 확장할까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생명운동, 사회운동 진영이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는가, 실제 확장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이었다고 봅니다.

동의하면서도 아쉬운 대목은 새로운 나라, 세상에 대한 비전이 ‘영성’으로 몰렸다는 점. 그럼 영성이 뭐냐. 사회적 영성이냐 개인적 영성이냐. 또 다른 무슨 영성이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저는 YMCA에서 20년 활동하다가 잠시 저를 위한 시간을 몇 개월 가지면서 발전 전략을 모색 중입니다. 한 가지는 지금 사회구조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국가, 성장, 기후변화 등 수년간 이런 논의들이 계속 있었는데 쉽게 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적이 불분명한 사회라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군사정부 독재 권력이라는 적이 분명했고, 적에 대항하기 위한 연대가 가치적 방식, 구체적 원리로 다양한 조직들이 그것을 넘어서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데요, 지금 시대는 적이 불분명해졌습니다. 실제 적은 기업이거나 경제체제일 수 있습니다. 경제에 포섭된 사회 구조 안에서, 그럼 모두가 적이나는 것이 한 가지 질문의 지점입니다. 영성과 삶의 변화에 대한 문제를 사람들은 왜 자치와 연대, 협동을 통해 풀기보다 각자 도생과 경쟁으로 풀려고 할까. 연대를 통한 상식선의 생각과 경쟁의 원리로 풀어야 하는 실제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현재는 철드는 사회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농경사회는 철이 깃드는 사회였고, 자연에 대한 경외감이 있었습니다. 종교가 다른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두려움과 경외심이 생기고 관계에 있어서 사람의 도리로 문제를 풀지 않으면 문제제기 당하는 사회체제 내에서는 철들면서 성숙한 사회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회에서 정신의 체계가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정신적 원리가 생활 속에서 작동하는 게 가능한데, 지금은 철들기 어려운 환경적 구조입니다. 몸을 써가며 자연 속에서 노동과 생산을 통해 삶의 변화를 가져가지 못하고, 나이 들수록 철이 들어야 정상인데 예전에는 노인들이 공경되던 사회라면 지금은 아이들이 최고의 가치, 선택의 우선이 되는 사회로 역행되는 구조가 산업사회 안에서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 안에서 생명평화라는 정신적 가치를 어떻게 생활의 원리로 작동되게 할 것인가가 우리가 풀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나도 생명운동가인가, 스스로 반문을 해 보면 무위당 선생의 기준으로 지역사회 기준으로 볼 때 생명운동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중앙 단위에서 국가와 사회 그림을 그리는데, 멈추고 싶으나 멈추지 못하는 묘한 아이러니 안에 있습니다. YMCA도 생명평화 운동을 선언하고 15년이 지났는데, 무위당 선생님이나 ‘원주의 기준’이 있다면 거기에는 못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역으로는 생명과 평화의 가치가 독점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중요하게 거론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리 가치와 관련된 토론은 중요하지만, 생명, 평화, 자립, 자치라는 말이 가진

큰 힘이 있는데 이것이 생활의 원리로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현재까지 협동조합 정도를 넘어서는 패턴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회적경제는 확산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제에 포섭된 생명운동이 돼 버린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은 생명운동은 대중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 질문을 하게 됩니다.

민주주의 교육을 할 때, 이 조직 혹은 당신은 ‘민주적 국가에 살고 있는가?’ 물으면, 대부분 아직 문제는 많지만 민주적 제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 민주적 방식으로 의사결정 하는가? 물으면 대부분 여러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민주적 합의체계에서 방법을 가지고 풀어간다고 합니다. 의사결정에 대해서 여쭙보면 다수결로 한다고 하죠. 그럼 다수결이 민주주의인가, 라는 의문점들이 생기는데, 생활의 원리로 작동되는 민주주의는 정말 무엇인가, 그런 실험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하는 고민으로 조금 더 발전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최근 치열성의 문제에 대해 생각합니다. 사회운동 하는 사람들이 치열하게 경계를 넘어 확장성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주장을 쉽게 하는데, 어떤 치열성이 있을까. 신념의 치열성은 있습니다. 최근 한 학부모와 상담하는데, 아이를 수학 학원에 보내는데 좀 더 시간을 길게 보내려고 한다며 YMCA가 가르치는 것은 그런 교육을 하지 말자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더라고요. 왜 그런 결정을 하시게 됐냐고 했더니, 학원 강사 선생님이 진정으로 이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가르치려고 한다는 겁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가 조금만 더 하면 더 나은 대학으로 가고 더 나은 인생이 열릴 텐데, 그 선생님이 보기에는 안타까운 거죠. 일요일에 돈을 받지 않더라도 교육을 시켜드리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경우 사회운동가들이 가져야 할 진정성, 치열성을 이미 넘어서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경제체제의 환상, 우리 삶을 더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믿음이 사람들을 경쟁시키고 작동시킨다는 것은 누구나 얘기하는데, 그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의 치열한 전사들이 삶의 공간에서 경쟁적으로 사람들을 포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생명운동 진영은 저런 사람들은 안 된다는 경계지음이 있지 않는가. 그것이 우리 운동을 확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개인적 방식으로, 소공동체 방식으로 가게 하는 게 아닐까. 어소시에이션체는 모든 사회운동의 기본단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체’들이 모여서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소공동체운동을 넘어서서, 발제문에도 지적했듯 개인을 넘어선 우리, ‘우리끼리’의 공동체가 아니라 공공적 가치를 생활 속에서 어떻게 원리적으로 만들어낼까, 폭을 넓혀가는 방식을 어떻게 택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 신지예

이필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에 포섭되지 않는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이 가능할까. 실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일반 대중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박수영 선생님이 끊임없이 부딪칠 것 같습니다. 그런 한계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뛰어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박수영

협동조합은 결사체 안에 사업체가 있는 구조인데, 경제적 논리 없이 협동조합 할 수는 없겠죠. 경제 가치가 우선이나 다른 가치가 우선이냐고 한다면, 경제 가치가 우선인 곳이 많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결사체가 사업체를 포함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가치를 협동조합운동에서 더 많이 내세우고 그것에 의해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나마 희망을 갖는 것은 나이를 먹으니 조금 달라진다는 생각은 듭니다. 협동조합을 오래 하면서 최초의 동료의식이 좀 변하는 것 같습니다. 30대를 협동운동 하면서 같이 보낸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이야기하면 협동조합을 잘 살리기 위해 경제적 측면에서 노력했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피부로 다가오는 것은 경제적 가치가 아니었다는 결론 아닌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방식의 접근을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원주의 전반적인 결론은 아니고,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질문: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면 결론이 무엇인가?)

‘삶의 방식’이라는 모호한 말로 얘기하는데, 조합원들이 필요와 염원을 해결하기 위해 모인 것이지만 사람들이 결합하는 방식과 원리가 있습니다. 윤리든 삶에서 느끼는 보람이든. 그런 것을 찾는 협동조합이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생명 가치’라고 얘기하기엔 아직 좀 면구스럽고, 인생에서의 보람, 일에 대한 긍지, 동료애, 사회적 의식의 성장 같은 것들이 협동조합 안에 녹아들 수 있다면 경제적 가치와는 다른 것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 이필구

저는 처음 시작한 운동이 YMCA 등대생협이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에 유일하게 (생협으로) 한살림이 있었고, 지금은 아이쿱 생협 등 많아졌는데, 협동조합의 7원칙의 ‘협동조합의 협동’을 통한 확장이란 부분에서 어떤 숙제가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물리적 통합이 아닌 실제 협동조합이라는 원리가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함께 확장해낼 수 있을까. 교육 같은 영역에도 공동의 전략이 있을까. 녹색당에서도 정당정치 선언 후 청년에 대한 전략, 확장의 측면에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 신지에

녹색당이 총선 때 1% 미만을 받은 걸 보면서, 4년 동안의 정치적 운동의 확장성에 대한 실패라는 평가가 내부에 있었습니다. 관계망에 들어 있지 않으면 녹색당원이 되고 가치를 전파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일반 시민들을 만나면 다들 이해를 못하시는 거죠. 당장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중요한 욕구인데, 그 속에서 어떻게 넓혀 가야 할까. 녹색당이 어렵게 찾은 방법 중 하나는 교육입니다. 녹색의 가치를 이 네트워크 밖에 있는, 특히 청년들에게 어떻게 전파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정책적 차원에서는 녹색학교를 만들어 보자, 이를테면 밀양에 가서 며칠 동안 공부하며 노래 부르며 정신을 함께 공부하는 학교를 만들어보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총선기간에 만난 한 당원 분은 이번에 녹색당에 투표할 수 없겠다고 하시면서 “나는 죽을 때까지 녹색의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오래 천천히 가야 할 먼 길임에는 틀림이 없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공부하며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청중

‘경제에 포섭되지 않는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해서 제 나름으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생활협동조합도 그렇고 시작할 때 기본 정신은 시장에서의 돈을 매개로 하는 관계를 넘어서 보자, 비싸고 불편하더라도 의미 있는, 예컨대 도농직거래라든지 어떤 것을 만들어보자고 출발하지 않았나 합니다. 자본의 시장과 다른 영역으로 시작했습니다 윤리적 소비 녹색소비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이필구 선생에게, YMCA가 생명평화운동을 표방했지만 생명평화 진영, 원주 기준에 못 미친다고 표현했는데, 거기에 되돌아볼 지점이 있지 않나 합니다. 생명운동이라고 자칭 타칭 부르는 영역들에 안팎의 경계가 비춰지지는 않았는가. 이런 자리도 생명평화 운동이 가치의 연대로 만드는 과정에 있는데, 밖에서 보기에는 그룹끼리 비춰지지 않았는가 여쭙습니다.

## 이필구

생명운동, 평화운동 '진영'이라고 쓰는 게 불편하지만 구체적 고민을 하고 실천적으로 만든 그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심 코어 같은 그룹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그것을 대중적 방식으로 흘러가게 하는 숙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경계와 벽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생명운동 한 사람들이 스스로 진입장벽을 만들지는 않았을 텐데, 대신 가치라는 부분은 걸어갈 길과 관련된 부분인데 가치를 세우는 부분은 토론과 논의, 공부의 과정이고 가치가 전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생명운동은 가치가 전체인 듯 느껴집니다. 다른 시민단체는 그것이 중요하다는데 동의하지만 참여해서 토론과 논의를 풀어가야 하는가?라고 할 때 각자의 삶과 현실이 너무 바빠서 동참 의지 크지 않다고 봅니다.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원리의 문제, 구체적인 방법의 문제로 본다면 구체적인 제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있는데, 아이쿱생협에 조합원 교육을 협력해서 할 방법을 찾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이쿱생협에서 주민정보교육원에 핵심 조합원 교육을 위탁하는데, 예전에 등대생협 교육했던 촛불(조합원)들의 모습과 거의 똑같은 분들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녀들 교육에 대해서도 자연학교를 열거나 생산자들에게 데려가거나, YMCA는 조합원 자녀 교육이 있고, 생명평화 교육에 맞는 영성을 일구는 고민이 생협에 비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와이(Y)펜'을 만들어 같이 협동의 방식으로 풀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가치가 아니라 방법의 문제로 수위를 낮춰서, 사회운동과 생명운동이 섞여서 갈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을까. 협동조합 간 협동이라는 원리가 지역사회에서 구현되지 않으면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로 가는 토대를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성을 드러내고 그것을 중심으로 사업화되고 평가하는 관계로 되면 좀더 확장성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 전진택

오늘 얘기된 몇 가지는 이후 주제를 정하고 토론하는 과정에 진지하게 고민해야겠습니다. 생평 가치라는 것이 일상의 원리로 뿌리 내릴 수 있는가. 그렇지 않고는 확장이 불가능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1월에 생평이 뭔가 해보려고 할 때 근기도 필요하고 확신도 필요하고 이야기하자면 영성 같은, 모두가 떠난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게 경쟁하는 세상에서 협동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 힘이 영성이라는 단어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 권력과 자치, 자본주의 경제 속에서의 자립.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바탕이 되는 나라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그것에 대한 자기 꿈과 자기 희망을 적극적으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시를 하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숲

정희성

숲에 가보니 나무들은  
제가꿈 서 있더군  
제가꿈 서 있어도 나무들은  
숲이었어  
광화문 지하도를 지나며  
술한 사람들을 만나지만  
왜 그들은 숲이 아닌가  
이 메마른 땅을 외롭게 지나치며  
낮선 그대와 만날 때  
그대와 나는 왜  
숲이 아닌가

<2부>

## 탈성장 시대, 자립적 삶과 새로운 나라

김현우(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하찮은 일일 수 있는데 저를 굉장히 신경 쓰이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일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스마트폰입니다. 원주보다는 서울이 훨씬 더하겠죠? 일상을 얼마나 스마트폰이 지배하고 있는가. 전철이나 버스 안에서 다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게 대표적인 모습이고, 그 때문에 책방에서 책도 확실히 안 팔립니다. 자투리 시간에 짧은 호흡으로 읽고 보는 것을 선호하게 되고 그만큼 자기 메시지도 짧게 늘어놓고 전달하는 것에 익숙해지게 되죠. 전철 다섯, 열 개 역 가더라도 굳이 책을 꺼내 읽느니 스마트폰 꺼내서 킬링타임 하는 게 편하거나 손이 먼저 가게 됩니다.

또 하나, 굉장히 시끄럽게 스마트폰으로 통화를 합니다. 저는 남보다 예민해서인지, 굉장히 거슬려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이런 가설을 갖고 있어요.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평균 데시벨이 높아졌다, 지난 10년 동안. 가설입니다. 그만큼 남에 대한 배려가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다른 나라보다 유독 한국이 그런 것 같은데 자신의 통화 내용이 다른 사람이 듣고 싶은 건가 생각을 안 해요. 게다가 많은 통화가 업무 얘기예요. 증권, 부동산 매물 같은. 한편으로 스마트폰 때문에 업무, 노동이 24시간 돼버린 측면도 있습니다. 시끄럽게 떠드는 노동자들이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진지한 얘기를 길게 하기보다는, 역시 킬링타임이 되는 거고.

파시스트적인 생각을 해보면 대중교통에서 스마트폰이 안 터지게 하면 큰일이 날까. 스마트폰을 가정용 전기요금처럼 누진요금으로 하면 큰일이 날까. 세상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하나는, 최신기종으로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그것을 마련하지 않으면 뒤떨어지는

것으로 여기죠. 요즘 관심 갖는 주제가 ‘의도적 진부화’, 쓸 만한 것인데도 자꾸 고장이 나거나 낡은 것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몇 년 지나면 실제로 고장이 나도록 회로 안에 숨겨 두는 경우도 있고, 스포츠 아웃도어 옷이나 자동차, 스마트폰은 더욱 그런 것 같아요. 심지어 이모티콘도 유행이 있죠. 자꾸 의도적으로 진부화돼서 못 쓰게 하는. 그게 지금 자본주의가 유지되는 가장 큰 원리 같기도 해요. 많이 만들어놓고 많이 팔리지 않으면 불황이나 공황이 오는데 가끔 가다 전쟁으로 해결하고 광고 같은 걸로 해결하는 거죠. 자꾸 버리게 만들고. 스마트폰 중에 지난 5년-10년 사이 시장에 안 풀리고 창고에서 바로 폐기됐던 것들, (제3세계로 가는 것도 있지만,) 그게 얼마나 되는 물량일까. 거기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회로, 희토류, 금속류가 얼마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런 얘기는 뉴스에 안 나오니 사람들은 모르는 거고요.

제일 제가 화가 나는 건 ‘배달 앱’입니다. 방법도 원시적이예요. 앱에서 주문하면 대행사에서 배달업체에 연락을 하고 배달기사들을 고용하는 데서 배달 하는데, 그 사이 커미션이 있고요. 두 가지 점에서 화가 나는데,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배달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나. 근데 그것을 자꾸 조장하는 거죠. 또 하나는 배달노동자들, 결코 권할 일자리가 아닌 거잖아요. 몇십 분 안에 배달을 못 해서 클레임 들어오면 요금을 제대로 못 받기도 하고. 사고가 나도 정식 고용업체가 아니니 (해결이 안 되고). 자꾸 야근하고, 밤새 놀고, 이런 걸 조장하는데, 어느 게 정상이냐에 대한 사람들의 관념이 바뀌고 있는 거죠. 배달노동 보면 우리 노동과 요리 패턴까지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능 프로도 편성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별것도 아닌 시답잖은 놀이를 자기들끼리 하는 걸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 중 하나는 피디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경쟁력 있는 자극적인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못 노니까 대신 노는 걸 구경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동네에서 다 놀았는데, 연예인들이 나와서 노는 걸 재밌다고 보고 있는 거죠. 우린 놀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발생하는 소음이랄지, 오토바이 소음도 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싫을 뿐 아니라 위험하다고도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핸드폰과 배달노동이 굉장히 하찮지만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왜 아무도 문제제기 안 할까. 아홉시 뉴스에도 안 나오고 국회에서도 얘기가 되지 않을까. 각각에 대해서 나름의 대안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핸드폰 누진요금제도 그렇고, 정말 필요한 분들은 쿠폰을 선별해서 발행해주면 되겠죠. 또 하나는 배달 음식에 500원, 1000원 정도 요금을 더 붙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것만 해도 훨씬 완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배달노동이 나쁜 거라는 사회적 인식이 심어지

면 점점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비해서 큰 일은, 제 경우 밀양 송전탑 문제였어요. 밀양 덕분에 저희가 배운 것은, 관계와 배려의 문제입니다. 제가 많이 하는 얘기가, 그 산꼭대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노동자들도 많아요, 노동조합원들이에요, 심지어. 어용노조도 아니고 민주노조 사람들이, 자기 일을 하는 거죠. 만약 이 사람들, 한전, 한수원 노동자, 밀양 시 공무원, 전경, 우리 전기를 쓰는 소비자들, 국회의원, 장관까지 테이블에 50명 100명 정도 모여서, 밀양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우리가 전기도 만들어야 하고 수출도 해야 하는데 이렇게 고압 송전망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이게 최선이고 유일한 방법인가. 신고리 3,4,5기를 좀 늦추거나, 분산하거나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면 많은 얘기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데 벼랑 끝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당장 신고리 3-4호기를 가동하지 않으면 큰일 나고 블랙아웃 된다고, 다른 선택지를 알 수 없으니까 우리는 “밀양 할매 할배들 불쌍하잖아요,” “민주 국가가 이러면 되나요,” 하고 소극적으로 싸우고 있는 거죠. 만남과 관계의 문제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당연히 세월호겠죠. 국가의 기능이나 여러 가지 많이 나온 얘기들 빼고 보면, 당연한 상식적인 것들이 상식적으로 정리돼서 이야기되지 않는 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돼요. 그 사이에 데이터 스모그 같은 게 발생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채널은 많아졌는데, 종편이든 SNS든 많은 정보가 나온 것 같지만 굉장히 혼란을 일으키고 물을 흐리는 기능을 하는 거죠. 반면에 폐북이나 트윗 같은 데서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 편 같지만 세상의 1%도 안 되고.

또 하나 고민은, 저성장 국면과 예고되는 구조조정인데. 조선업이 정말 위기냐는 것도 갑론을박이 있지만 현장 분위기를 전해 들으니, 하나는 물량팀이라고 용접 기능사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조선소들을 옮겨 다니면서 자기 팀 끌고 다니면서 수입은 정규직보다 높은데, 물량이 줄어들면 우선적으로 정리하는 거고. 그런데 뉴스에서는 이런 사람들 큰일 났다고 나오고 3천 명 5천 명 자른다고 하는데, 사무직을 정리하거나 노조 길들이기 이런 것들. 반면에 노조 쪽은 어떤가, 빅3 노조는 별로 걱정을 안 한대요. 실제로 물량 팀은 우리 조합원도 아니고 과잉 인력이기 때문에 정리했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뭐가 정상인가. 저성장 국면과 GDP 위축에 따른 잠재적 공포감, IMF도 겪은 우리잖아요, 그런 것은 무얼까, 이런 얘기까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박내현(청년공동체 도꼬마리 운영자)**

늦게 도착해서 택시를 잡아타고 오는데 굉장히 천천히 달리시더라고요. 마음이 급해서 좀 빨리 가주셨으면 좋겠다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또 내가 이렇게 빨리빨리에 익숙하게 사는 사람인데 가서 탈성장 얘기를 하는 게 바람직할까 생각을 하고 왔는데, 스마트폰과 배달앱 말씀하시니까 더 많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저는 자립과 자급이라는 부분을 여러 번 읽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손으로 뭘 만들어서 하는 모든 게 안 되는 사람이어서 만약 내가 뭘 스스로 만들어서 살아야 한다면 진짜 못 살겠구나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인데, 이 자립이라는 게 어디까지 가능할까 생각해봤고, 특히 도시에서 공동체 활동 하는 사람으로서 자립과 자급이라는 게 어디까지 가능할까. 밥을 일귀서 내가 먹을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혹은 지역에서 땅콩집을 짓고 살고 아이들을 홈스쿨링하고.. 이런 게 자립과 자급인가? 고민도 들었고요.

저희 공동체를 소개하면 서울 이문동 한구석에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50명 정도가 회원인 작은 공동체입니다. 20~50대 다양한 분들이 있어서 청년이라는 말을 쓰는 게 조금 무색한 상황이긴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저희 카페가 10시쯤 문을 닫는데, 그 근방 친구들이 와이파이를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인터넷 비용 부담 때문에. 카페에 와서 와이파이를 사용하는데, 밤 10시 이후에 퇴근해서 돌아오면 그 시간대에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 시간에 도꼬마리 카페 와이파이를 켜두고 가면 안 되냐는 제안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실은 저희가 작년 재작년 밀양에 연대농장을 다녀오고 했지만 저희가 사는 도시에서의 생활은 전기 없으면 살 수 없는, 늦은 시간에도 전기나 와이파이를 쓰지 않으면 너무나도 불편한, 그걸 호소하고 해결을 해야 하는 도시 생활자들이 과연 자립과 자급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의 역동성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4년째 도꼬마리 공동체 활동 하고 있는데 처음 시작은 단순한 계기였어요.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들을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해서 한계를 많이 느끼기도 했고, 늘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똑같고, 이런 데 대한 답답함, 갈급함이 있는 상황에서 내 주변사람들과 작고 사소한 문제를 이야기하다보면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좀 더 커다란 문제, 사회문제까지로 연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마을에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기존에 제가 관계 맺고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과 작고 사소한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면 어떨까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분들이 마을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활동하고, 밀양에

연대를 하거나 지역 세월호 활동도 하지만 평상시에는 같이 밥 먹고 영화보고 책 읽고 여름 되면 같이 밤늦게까지 모여서, 집집마다 에어컨 틀지 말고 모여서 에어컨 틀어놓고 영화보고, 술도 만들고, 소소하게 하고 싶은 활동들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렇게 작고 사소한 이야기들이 모여서 과연 정말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지향으로 가고 있나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카톡방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최근에 회원 분들이 카페에 오시지 않는 거예요. 작년까지는 상근자를 별도로 두지 않고 시간 되는 회원 분들이 낮 저녁시간 나눠서 운영했는데, 그러다 보니 시간을 내는 사람만 계속 내게 되기도 하고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자를 내고 음료도 팔고 대관도 하는 카페로 운영해보자 해서 긴 논의 끝에 올해 카페 모양새를 취한 형태로, 판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상근활동가 두 명을 두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기존 회원들이 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 뭘 하자고 해도 안 오시고. 장터도 하고 이것저것 해도 오는 사람만 오게 되는 거죠. 고민하다가 올해 초에 같이 얘기했던 게,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작은 연결고리들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저희 상근활동가가 최저임금이지만 활동비를 받는데, 예전에는 회원들이 오셔서 쓰레기도 치우고 정리도 했었는데, 언제부턴가 이것은 돈을 받는 상근활동가가 할 일, 이렇게 분리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쓰레기통이 가득 차도 아무도 비우지 않고, 오히려 상근자들이 청소나 정리를 안 하는 것 같다. 문제제기 하시는 거죠. 상근활동가한테 주는 급여도 너무 작고, 그런 상황에 왜 꼭 돈을 받는 노동만 가시화되는 건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작게 시도해본 게 노동화폐라는 걸 만들어보자,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만들어보자. 일주일에 한 번씩 공간에 들어서 수건을 빨겠다, 수요일마다 바닥 대걸레청소를 하겠다, 그 활동을 하신 분한테 그것에 대한 쿠폰 같은 걸 드려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지만) 커피나 무료대관 같은 걸로 해보고 있습니다. 구성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고 특히나 도시에서의 공동체의 가장 큰 문제는 삶터와 일터가 분리된 거라고 생각해요. 이문동에 살고는 있지만 대부분은 서울의 정반대쪽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8시, 10시, 심지어 더 늦은 시간에 돌아오면 저희 공동체 카페에 들르는 것조차 피곤한 일이고 문자나 메일로 뭘 하자고 보내는 것 자체도 그분들한테는 지겨운 일일 수 있는 거죠. 심지어 뭘 결정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건 더 힘든 일인 거예요. 여기 오면 쉬고 싶고 위로 받고 싶은 공동체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논의하고 결정하자고 하고 생전 토론도 안해 본 사람들이 모여서 발언시간 정해서 토론하고 이런 게 생경하

고 힘드신 거죠.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주 작은 것들을 포착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여전히 고민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법적으로 청년의 꼬트머리 시기에 청년공동체를 만들었고 지금은 청년이 아닌 나이인데요. 제 주변 청년들이 특별히 그럴 수도 있는데 굉장히 힘들게 살아요. 많이 아프기도 하고, 하루 종일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대학등록금 덕분에 수천만 원의 부채를 이미 지고 있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에게 덧씌워진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열정, 혁신, 마을공동체에서도 청년이 와서 마음에 새바람이 불고 활성화되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마을에 청년이 왔다고 하는데 그럼 그 마을에 원래 있던 청년들은 어떻게 살고 있다가 궁금하거든요. 이 청년들이 자라오던 시대에 그 부모들은 모든 것을 희생해서 자식들이 잘 되길 바란 세대였잖아요. 열심히 노동하고 그걸로 아이들을 열심히 먹이고 자라게 한 게 그 청년들이 보고 자란 모습인데, 이제 와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다른 방식의 세상을 꿈꿔보라고 말하는 게 과연 가능한가.

어느 날 성미산 얘기를 들었는데, 공동육아로 자란 청년이 마을에 다시 돌아와서 교사를 하고 있다. 그것을 보고 자란 청년들은 또 그런 꿈을 꿀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마을에서 만난 청년들은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어떤 계기나 접점도 없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친구들에게 같이 한번 꿈을 꺾보자, 뭔가를 같이 해보자고 얘기하는 게 쉽지 않고, 그들의 필요가 정말 어디에 있는가. 새로운 세상을 얘기할 때 진짜 다음 세대인 청년들과 함께 그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반쪽짜리 세상이지 않은가. 그 얘기들을 오늘 함께 해보고 싶었습니다.

### 김신양 (사회, 모심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내현 님은 미리 하고 싶은 얘기를 메모해주셨어요.

“우리는 매일 작고 사소한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자본은 크고 엄청난 속도로 우리를 밀어내는데, 우리는 정말 공동체로 마을로 우리의 의지로 다른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걸까? 탈성장 시대, 우리는 정말 성장과 개발을 멈출 수 있는 것일까? 경제적 성장은 멈춰 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욕망의 성장은 계속되고 있다. 그 해답을 개인에게 찾으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책임한 것인가.”

## 이무열(마케팅-커뮤니케이션협동조합 '살림' 이사장)

마케팅이 이런 생명평화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익숙지 않으시죠. 저희가 협동조합을 시작한 것은 그런 마케팅을 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해보자고 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도 제가 하고 있는 일과 연관지어서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일적으로 어떤 주제를 받으면 자꾸 답을 찾아내려는 습관이 있어요. 제가 모시는 선생님이 계신데, 사람들은 살기 위해 먹는 건가, 먹기 위해 사는 건가 했을 때 그 선생님은 먹기 위해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들었을 때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질 토대가 근간이 되는 거기에서부터 자립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립의 문제는 경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협동조합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낙관적, 혹은 수동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흐름이 그렇게 될 것이다, 수동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냥 지금의 체제에서 보완적 역할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자립의 반동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주의 기업도 계속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 환경의 변화를 그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더 빨리 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곳에서 그런 위기 징후들을 알아차리고 있고, 우리가 익히 들었던 자본주의 4.0, 자본주의 인간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프레임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발제문에서 기업의 책임을 말씀하셨는데, 요즘 들어 저는 그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만들어가는 나라가 모두 협동조합만의 구조로 될 수 있지 않지만, 기업이라는 것이 진정성의 문제에 걸려 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습기, 폭스바겐 디젤감소장치 허위조작, 이런 것들이 기업의 민낯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분명 협동조합에 좋은 환경은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기재부 쪽과 만나다 보면, 길들이려고 하는 것도 많이 보이고 있어요. 이런 것과 다르게 환경이 좋아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문제는, 협동조합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많이 하고 마케팅, 기업 진단, 방향 관련 이야기를 드리는데, 내적 역량은 아직도 걸음마 단계로 보입니다. 협동조합 하시는 분들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시간과 공간, '시절'이라고 신영복 선생님이 얘기하셨는데, 시절에 대한 것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협동조합 관련해서 로치데일, 스페인 몬드라곤 공부를 많이 하는데, 2016

년 대한민국의 협동조합이 거기에서 정체성과 어떤(물론 배워야 할 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 것을 탁본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눈 깜짝 할 새 변화가는 상황에서 과거를 지향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물론 과거가 미래이긴 하지만) 그런 모습을 많이 보고 있고, 오히려 스페인의 파고르가 파산됐을 때 예고된 파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과거 성장 시대, 자본주의의 보완 역할을 하면서 같이 성장했는지 모르지만 2016년 전체적인 시장 구조로 보면 그런 규모의 경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구글의 경우도 셀 단위로 분화되면서 네트워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더,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이야기, 밖을 보는 눈을 안으로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6년 대한민국 협동조합에서 나와야 할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 어떤 점에서 그런 걸 공론화하는 데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안과 보완의 문제, 계속 나왔던 이야기인데 잘 꺼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 탈성장 시대의 협동조합 얘기가 발제문에 나왔지만 그런 이야기가 바깥에서 별로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측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고, 윤리적 소비, 그 적정선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눈앞에 있고 피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협동조합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런 창신의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지 않은 게 안타깝게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개진될 때 협동조합의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협동조합, 생명평화, 기존의 진보적 운동도 똑같은 질문을 드릴 수 있는데, “고객은 설득이 될까?” 예전, 매스마케팅 시대에는 됐지만, 지금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활동은 아직까지도 시민과 대중을 설득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보입니다. 요즘 마케팅에서는 설득이 안 되는 고객들을 어떻게 만나려고 하는가. 영향을 주려고 합니다. 즉 그들 스스로 바뀔 수 있도록 영향을 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요,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지향하는 바에 대해 영향을 주는 모습을 어떻게 찾아가야 할까.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매력적이고 설레어야 한다. 같이 하고 싶고, 재밌을 것 같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 보이면 오다가도 도망가죠. 아까 말씀하셨는데, 40년 동안 활동하신 분들은 견딘 거라고 보입니다. 즐겁지 않았죠. 그렇게 계속 못하지 않습니까. 즐겁게 해야 평생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모습들을 찾아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주제는 ‘관계’입니다. 지금 마케팅의 화두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고객과 관계를 만들어갈까. 우리도 계속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원

불교 100주년 때 진행했던 게 ‘초불안사회와 영성’이라는 주제였는데, 아이에서부터 노인까지 불안은 뭘까, 공통된 것이 ‘고립’입니다.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하는 거라고 보입니다. 누군가 의지할 데가 없고 나눌 데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해답은 공동체고 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게이지먼트, 마케팅에서 생활, 사람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논리적인 게 아니라 감성적으로 사람을 만나야 한다. 관계 얘기가 나온 시점이 논리와 이성의 시장에서 감성의 시장으로 변화된 시점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해득실이 아니라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무언가, 물론 그 안에는 우리가 지향하는 바와 정체성이 있어야 되겠죠.

정리를 하면, ‘우리’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나’의 열망이 ‘우리’가 되지 않고 어떻게 공동체가 만들어질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다양한) 열망이 모여서, 생활 안에서 모임을 만들고 그게 공동체로 나아가게끔 하는 과정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제안 드리면, 요즘 오픈 플랫폼 얘기가 나오는데, 생명과 평화에 대한 여러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만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면 어떨까. 그 속에서 만나서 일을 벌여보고, 일이 끝나면 각자의 자리도 갈 수 있는, 그런 걸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성훈(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부이사장)

우리가 루저들의 자기 고백, 찌질했던 자기 인생을 계속 생각하는 것을 영성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진 않은가. 자기 고백은 누구에게나 필요한데, 자꾸 그 얘기로만 돌아가서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건 자기 얘기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는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영성에 대해서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무지한 채 살아간다는 오만이 우리에게 있었던 건 아닌가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꽃문이 스스로 열려야 봄바람이 불어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학사상의 ‘향아설위’라는 말도 좋아합니다. 나를 위해 위패를 설치한다는 말이죠. 공동체 이데올로기에 짓눌리며 살아왔던 봉건시대의 그늘에서, 동양에서 위대한 개인을 발견한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선언을 받아들이면서 여전히 개인, ‘나’를 중심으로 얘기하지 않고 우리를 짓눌렀던 공동체라는 논리로 나를 설명하는 방식을 아직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당대의 동학의 이야기, ‘나락 한 알 속의 우주’가 있었다면 그 ‘나락’이 나인데, 내가 우주인데, 그 자각으로부터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얘기하기보다는 근대 기계 문명 속의 부품처럼 사고하게 하면서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 부분을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오히려 개척하는 개인, 자기 발언을 하는 개인, 어떤 공동체나 이념에 짓눌려서 자기 견해 없이 흔들리는 개인이 아니라 내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당당하고 떳떳하게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생을 책임져 나가는 개인이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지역 자활센터 여성 활동가분과 자리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활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분들이 많이 계시고 많은 상처와 아픔으로 살아가고 계신데, 이분들을 돕기 위한 곳이 지역자활센터입니다. 이분들의 상처를 가장 먼저 투사하는 사람이 같이 있는 자활 주민, 그다음이 자활 실무자 분들입니다. 어제 얘기를 들으면서, 그 자활 참여 주민들이 끊임없이 여성 실무자를 성적으로 희롱하고 괴롭히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내 일이 되는 것이 너무 괴롭다면서 눈물을 쏟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여성 실무자 분에게 그동안 선배들이 했던 이야기는,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곳이야, 이런 논리로 스스로 자기를 방어하도록, 자활 주민이 그것을 못하도록 싸울 수 있게 하지 않고 겸손, 희생, 헌신이란 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몰아가는 것이 우리가 만들려고 한 세상의 모습일까. 우리가 개인주의에 대해 비판을 많이 하지만 그 이전의 시대는 신분제를 통한 억압, 성적인 억압이 가장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전근대로 돌아가는 데 대해 절대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훨씬 더 많은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당시 억눌려 있던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개인의 등장과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개인이 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주체인 의존성의 단계에서 내가 주체인 독립성의 단계를 우리는 아직 가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독립과 자립이 절대적일 수 없고, 어떤 존재도 홀로 존재할 수 없으니까 다만 의존성으로의 상대적 독립성을 충분히 경험한 뒤에 상호의존성의 단계를 거치면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고등학교 때 전교조 세대로서 가난의 문제가 사회의 문제구나 분노를 가지고 운동을 하다가 뒤늦게 군복무를 했는데, 고참이 대구에 사는 21살 상병이었습니다. 24시간 저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모욕하고. 제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 싸우는 일을 많이 했지만 제가 그렇진 않았거든요. 군대에서 그런 사람을 본 거예요. 거기에선 수류탄이나 실탄을 지급해주는데, 정말 극단적인 생각을 할 정도로 고통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군대에서 읽을 수 있던 글자가 두 가지, 국방일보와

성경책이었습니다. 성경책에서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구절을 보자마자 바로 그가 옆에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 왠지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면서 뭔가 그 이전에 생각했던 방식과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종교 공부를 하다가,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바꾸자, 생각하고 승복을 입고 캐나다와 미국에 가서 영성에 관련한 이야기도 하고 뭔가를 바꿔보려고 했는데, 6개월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걸 알게 되어서였습니다. 현장에서 아득바득 욕망과 이해관계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얼마나..

당시 저의 공부를 도와주는 스승님들이 계셨는데, 절은 도인들이 오는 게 아니라, 상처와 고통이 너무 많아서 치료받으러 오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을 얻거나 하는 사람들은 기업에 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사회를 바꾼다고 하지만 그 생각을 고쳐야 한다는 얘기들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영성이라는 주제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해볼 것들이 있는데, 영성, 개인, 공동체 문제를 얘기한다면, 공동체를 망치는 사람은 늘 공동체를 얘기하는 사람이다. 살리는 사람은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사람이다.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에 동의가 많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에 산다는 것의 아픔에 대해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역에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뭔가 함께 새로운 길을 모색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는 루저로 자기변명하며 살고 싶진 않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는데,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고 할 때는, '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 이유, 왜 이 세상이 힘들게 되었는데,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가, 주적을 분명히 해야 하고, 하루하루 일상의 내 생활세계를 중심으로 본다면, 내 생활세계에서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지역'에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망치는 적이 누구인지 규정하고, 그것에 대항해서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어려운 조건 속에서 대전의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작년에 '대전사회적경제민간성장전략5개년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성장은 탈성장 때문에 고통 받을 민중들을 새롭게 태울 수 있는 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운 비전이 2020년까지 3000억 원의 내부 호혜시장을 만든다, 1000개 협동조합을 만든다, 1만 개 일자리를

만든다, 10만 명 조합원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성장전략에 동의한 사람들이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씨줄과 날줄로 나눠서 생애주기별로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년, 노년, 장례 협동조합까지, 기본 인프라 측면에서 금융, 유통, 교육, 언론, 의료복지로 전반의 지역사회 생태계를 구성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을 때, 이를 괴롭히는 초국적 금융자본, 다국적 유통회사, 식품복합회사라는 적과 맞서서 지역사회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나가는 일을 하자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 김신양

김성훈 님이 하신 말씀은 자료집 14쪽에 무위당 선생님의 말씀 중에, “전일성인데, ‘전’이라는 건 보이지 않아요. … 각자가 소화시켜 나가는 수밖에 도리가 없어요.” 이 말이 그 말이었구나 생각이 듭니다.

박내현 님의 고민에 약간 위로가 되는 말이 바로 그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체라든가 한 지역의 조그만 진실한 운동이 자연과의 상호관계를 할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 놓은 그것이, 겉으로 볼 적에 아주 소그룹이지만 그것이 전 우주와 함께 한다고 하는, 우주와 통일한다는 하는 그런 것이다” 도꼬마리가 미천하고 개발에 내몰리는 작은 공동체인 것 같지만 그것이 어떻게 우주와 만나는지, 그런 비전을 제시해준 것 같은데, 또 다시 어떻게 보면 도꼬마리가 가진 고민은 개발 문제가 왔을 때 청년, 공동체로 해결되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는 정당, 정치를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국가와 자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에 대적할 무기가 정치라면, 그것은 정당뿐인가. 열어두고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무열 선생님 말씀은 12쪽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본래 유럽으로부터 온 소비조합이나 신용조합, 생산조합이란 압정에 시달림을 받아오던 사람들이 산업혁명 이후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것입니다만, 지금은 대기업의 하청업과 같은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협동조합을 만들 것인가를 많이 고민해야 되고, 새로운 시장 없이 다른 협동조합이 가능할까 하는 것까지 같이 논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박내현

김성훈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전의 성장전략을 들으면서 그 부분이 와 닿았던 것 같아요. 무엇이 문제인가를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로부터 탈출할 사람들을 태울 새로운 배가 필요하고 그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상대적으로 활동

경험이 짧아서 그런지 그런 고민이 듭니다. 선배들을 만나면 동일하게 개인이 중요하고 행복해야 하고 자기 욕망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다시 활동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을 만나게 됐을 때 정작 왜 행복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질문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큰 그림을 그리고 비전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새로운 세상이 꼭 뭔가를 준비하고 완비해놓는 그림으로 그려져야 하는가.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누군가가 애쓰고 노력하면서 자기 자신을 갈아넣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전의 고민, 그려낼 수 있었던 힘, 그런 얘기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 김성훈

‘나라’라는 표현을 보니 함석헌 선생이 하신 나라는 ‘너도 나라’ 이게 나라다. 국가가 아니라 나라라고 표현하신 거잖아요. 질문하신 거랑 연결해서, 내가 내 이익만 추구하면 행복하지 않죠. 그래서 대립된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자꾸 대립으로 사고하려고 한다고 생각돼요. 일단 내 이해관계도 중요하죠. 함께 사는 다른 사람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한 삶의 관계 속에 놓여 있잖아요. 그것 사이에서 중용의 길을 찾는 것이 인생의 지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나 너를 일방적으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함께 살아갈 수 있을 때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나쁜 개인주의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전의 문제는, 사회운동 하는 사람들에게 전략적 사고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여러 견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션과 비전을 정리하고 환경 분석을 하고 내가 추구하는 가치에 따른 나의 차별성을 정립하면서 핵심 역량을 키워나가는 일련의 행위를 전략적 사고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비전이라는 것은, 가장 대표적으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I have a dream, 흑인 소년과 백인 소녀가 한 식탁에 어울려 같이 밥을 먹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싸움 속에서 수없이 희생되었지만 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꿈을 꾸기를 포기할 수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전의 핵심은 얼마나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맞닿아 있는가. 그것이 비전을 실현시키는 힘을 만들어내는 데 중요하기 때문이고, 추상적 가치 체계를 얘기할 때는 모습이나 모양이 그려지지 않으면 어떤 길로 어떻게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번 그림을 그렸다고 해서 영원불멸한 것은 아니고, 늘상 현장과의 토론을 통해서 다시 그려지고 다시 만들어가지만. 그때그때의 비전을 같이 만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가지 여쭙보고 싶은 것은, ‘국가주의’와 ‘성장주의’를 보면서 진부한 얘기 아닌가 했는데, 정부실패 시장실패 얘기 나온 지가 한참 되었는데, 그것과 다른 얘긴인지, 어떤 생각으로 기획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김현우

정부실패 시장실패는 다 인정하는데, 문제는 실패했지만 그것 말고는 다른 건 더욱 재앙이라는 게 더 크다는 얘기죠. 실패라는 건 감추지 않고, 그래서 3.0, 4.0 이야기 나오는 것이고요.

조선업 얘기 잠깐 했는데, 지금 저유가 상황과 중국 경제위축 상황에서 수동적으로 오는 저성장 국면이고 이걸 탈성장 국면으로 활용할 것인가 얘기하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볼 수는 없을까.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나 노트북, 자동차, 나온 지 2-3년 되는 물건, 성능 좋고 쓰는 데 별 차이 없고 가격은 절반 이하죠, 보통. 사람들 다수가 2-3년 된 물건을 쓴다면 어떻게 될까. 기업들이 난리가 나겠죠. 그런 운동이 전면화되면 국가 안위를 해치는 사람으로 잡아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입장은 무엇인가. 생협은, 노동조합은.

살림운동, 생명운동, 평화운동이 30년 또는 10년 동안 얼마나 확산됐는가, 또는 그 운동이 스마트폰을 붙잡고 시끄럽게 업무 얘기를 하는 사람과 배달노동자들과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대전은 고생하면서 만들어놓은 ‘나와바리’가 있고, 여기가 우리의 싸움터다, 바깥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무열 님이 말씀하신 오픈 플랫폼 얘기도 그럴듯하다고 느껴지는데 이게 기존 그룹 또는 세력 중 코어 노릇을 하지 않고서 될까, 협동조합, 생명평화운동은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과제를 말할 수 있나. 조금 더 얘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무열

제 질문에 답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단 없는 계획은 없다고 하는데 이번 발제문에는 진단이 없는 것 같다. 확장을 못했다, 왜 못했는가.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협동조합 올해의 화두가 진단이에요. 왜 협동조합이 지금 이 상황에 있는지, 그 이유를 찾아야 바뀔 것인데. 그런 데 대한 내용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오픈 플랫폼은 기업도 들여오려고 하고 여러 곳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C&D(Connect & Development)라고 저희는 얘기합니다. 연결되고 발전시킨다, 수평적으로 가야 하고 벽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하는 사람들의 가이드라인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와서 무슨 일을 해도 된다. 초기에 생명평화 쪽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모일 수 있는데, 이게 비선형이고 배밀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시점에 누구나 와서 어떤 일이든 여기서 해보자고 만들어지면, 보통 기업에서 열 개 중에 두 개 성공하면 잘했다고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되고, 하나 잘 되면 그 하나가 나머지 열 개를 만들어줍니다. 저는 일단 시작을 한다, 누구나 문턱 없이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아무런 인위적 가이드 없다, 흐름으로 갈 것 같다, 시간을 갖고 지켜보자, 시도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신양

김현우 님이 의도된 진부화 얘기하셨는데, 2-3년 된 것을 모든 사람이 쓰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상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10년 동안 모든 노동자들이 자식을 안 낳으면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한국의 문제는 대학이다, 교육운동 하시는 분은 모든 고등학생들이 입시를 보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작은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윤리적 소비, 생산 얘기하는데 무엇이 윤리적 소비냐 하는 것은 캠페인만 하고 개인의 책임과 의지에만 맡기면서 무엇이 윤리적 소비이고 생산인가에 대한 담론은 없는 상황에서, 착한 사람 느낌을 내게 하는 것처럼 이용되는 상황에 대해 적절하게 문제제기해주신 것 같습니다. 협동조합운동도 착한사람 코스프레 하는 마케팅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현우

박내현 님도 '이생망' 얘기하면서, 희망이 없을까, 이런 얘기 하셨는데, 청년들에게 생명평화운동이 어떻게 다가가고 있고 다가갈 수 있을지 물어보고 싶고, 어렵더라도 밤 하늘에 별 같은 게 있으면 견디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식 안 낳기, 시험 안 보기, 중고품 쓰기도 좋은데, 어쨌든 운동이 되어야 하는 거죠. 다른 분들 얘기에서도 비슷하게 느꼈는데, 답답함이나 아쉬움은, 22년을 기념하면서 각오를 다지고 점검하는 자리이긴 하지만 '새로운 나라'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새로운 나라가 청년들 마음까지 움직이고 견딜 수 있게 하려면 말도 안 되는 상

상, 제안에 들끓어야 하는데 대부분 협동조합과 자기 조직 어떻게 살릴까, 견딜까 얘기가 팽배한 것 같아요. 운동을 너무 오래해서 지쳐서만은 아닐 것 같고, 그 갭을 어떻게 넘어설까. 새로운 나라라는 슬로건에 부합하는 에너지와 내용을 어떻게 확보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성훈

원주 왔으니 마음 편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서울 사람들 이기적인 것 같아요. 지역에서 회의 때문에 다 중앙이나 연합회 사무실이 서울에 있어서, 대전에서 KTX 차비도 비싸고, 연합회 회비는 그런 것과 무관하게 똑같이 내도록 하고. 지역화의 문제로 연결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역에서 5개년 계획 세울 때, 한살림과 아이쿱이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주체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토론을 했어요. 물론 오래전부터 한살림이 지역살림이라는 의제를 가지고 여러 얘기를 했는데 지역살림 구조로 가려고 했을 때 특히 중요한 영역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독립적인 유통 플랫폼을 만든다는 것이었거든요. 물류 문제는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 지역순환의 가장 핵심적인 고리니까. 사실 그것이 논의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지역화 전략을 갖는다는 것은 순환과 공생의 지역살림이라는 대 전제를 가지고 하게 될 때, 좋은 일을 하고 여러 활동을 하시지만 다시 지역을 근거로 한 싸움을 만들려고 할 때 어디까지 맞는지 잘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도 진지하게 토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내현

청년 관련한 말씀을 하셔서, 오늘 저희가 얘기하는 탈성장, 새로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모두가 합의한 그림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느끼는 새로운 세상, 제가 공동체를 선택하면서 고민했던 모습은, 존재가 그 존재 자체로 존중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학벌, 재력, 특별한 재능, 위트, 기술이 없더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이 소중하게 존중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내가 꿈꾸는 세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그 세상을 만들어가는 방식도 공동체를 지향하는 방식 자체가 공동체적이어야 하고, 수평적이고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과정 자체도 새로운 방식으로는 왜 안 될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를 계속 불편하게 하는 말들은, 전략적인 사고가 부족하다, 열정을 또 다시 요구하는 것 같은, 물론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

게 맞지만 지금 되게 지쳐 있는 청년세대들에게 그런 열정과 에너지가 있을까. (무임승차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주변 청년들에게 그런 삶을 같이 살자고 얘기하기엔 제 자신도 확신이 부족하고, 정말 행복하게 자기 삶을 구축하고 계신 활동가 선배님들이 저희 앞에 많이 보여야 청년들에게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살아보자, 지금은 천천히 가고 좀 실패하고 틀려도 괜찮다고 하고 싶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청중

저희는 창녕 우포늪으로 귀촌한 지 1년 반이 넘어갑니다. 귀촌하려고 생각했던 이유는 노래하고 음악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어떻게 행복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을까. 결국은 자족하는 삶, 점차 자급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고자 귀촌했습니다.

기본적 자립이 먹거리라고 생각해요. 도시에서는 에너지든 먹거리가 시골에 없혀가는 거거든요. 성장시대는 끝났고, 청년 고용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 테고 생산량은 줄어들 텐데, 쌀 자급률도 떨어졌습니다. 농촌에서 고령화로 농사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는데 기본적인 자립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실제 농촌은 생각보다 심각해요. GM 벼까지 시험 재배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농부로 키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자신 있게 내 아이는 농부로 키우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고 있을까. 소비만 하는 도시에서는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역에 어떤 철학적인 베이스 같은 것들이 정말 떨어져 있어요. 자녀들을 그 어른들이 있는 그 부모 밑에서 성장시키려고 하는 데도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학교교육은 도시로 나가서 자기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아이들을 길러내는 쪽으로 되어 있고, 그럼 그 아이들이 농촌으로 다시 돌아올 것인가. 교육이 그렇게 가고 있는가, 그 부분도 함께 고민하고 짚어봤으면 합니다.

## 청중

그전에 시골에서 어렸을 때 논 물꼬 싸움이 있었습니다. 비 오는 때를 이용해서 논에 물을 대는데, 아침에 가보니 다른 집으로 물이 가 있습니다. 그럼 싸우는 겁니다.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 물꼬 하는 사람들끼리도 이웃에서 노력하면 술 한 잔 먹고 화해가 되는데, 지금 배운 분들은 지지 않고 '나'밖에 없는 게 좀 아쉽습

니다.

<남으로 창을 내겠소>라는 시. 이 속에 자연, 이웃, 꿈도 다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해도 욕심이 많아서 그렇다. 욕심을 줄이는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탈성장 시대 욕심을 줄이면 됩니다.

농사, 쌀 얘기했는데, 농촌에 전부 노인입니다. 왜 그런가. 애를 가르칠 수 없어요. 쌀 한 가마에 16만원, 옛날에는 지금 돈으로 160만원 했어요. 일 년에 쌀 10가마. 10배가 있어야만 월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면서, 욕심 내려놓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봅니다.

## 청중

조선업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다룰 게 있습니다. 거제도 인구가 22만 명인데, 그중 2만 명, 10%가 해고됩니다. 가족들까지 생각하면 거제도 경제는 무너진다고, 어제 경남의 회 특별토론회가 있었어요. 저는 시인이지만 30년 동안 노동자였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조선 산업이 왜 지금 안 되고 있는가. 딱 두 가지 이유입니다. 저유가 때문에 해양플랜트 산업이 안 됩니다. 바다에서 석유를 뽑아 올리는 해양플랜트 산업이 우리나라가 1위인데, 그게 안 됩니다. 선박이 전 세계적으로 과잉입니다. 화물이 10만원 하다가 5만원 하는 선박회사가 줄을 섰어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왜 줄을 섰을까. 대우조선 작년 적자액이 4조원입니다. 첫 번째, 노동자가 너무 많다. 일시적 비정규직. 물량팀이라고 얘기합니다. 연봉이 정규직보다 많다는 오해까지 받으면서 왔다갔다 하는 사람이 일시적 비정규직입니다. 그런데 대우해양조선은 2000년 대우그룹이 망하면서 산업은행이 지금까지 관리해왔어요. 공기업이라는 말입니다.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16년 동안 사장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런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일본이 선박회사에서 최고였어요. 강제 통폐합, 일본의 조선산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그 똑같은 망해가는 길을 가려고 합니다.

셋째, 해고는 살인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돼요. 일시적 비정규직으로 물량팀을 구성해서 하부구조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문제가 생기면 그걸 자르는. 수많은 비정규직, 무려 2만 명이 곧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5월 말로 해고하겠다. 쌍용차보다 더 큰 비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 김현우

대우조선해양의 특수성은 모르지 않습니다. 현대나 삼성중공업도 같이 보도가 되고 있

는 거거든요. 빅3 정규직 노동조합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지 언론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고요. 오히려 여기에 애깃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처럼 망하지 말고 조선업을 성장시키자, 성장을 어떻게 시키고 왜 시킬 것인가, 앞으로 20-40년 에너지를 많이 쓰거나, 대규모 물량 수송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가 하는 얘기를 해볼 수 있고, '해고는 살인'이라는 게 중요하지만 언제까지나 가장이 별어서 먹여 살리고 가장이 잘리면 모두가 죽게 되는 이런 구조를 우리가 인정할 것인가. 정당하지 않은 것과 바람직한 건 다른 거거든요. 새로운 나라, 다른 나라에서도 계속 그래야 되는 거. 본질적으로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뉴스에도 안 나오고 사회운동 협동조합 진영에서도 하지 않았던 얘기를 할 기회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신양

먹거리 관련해서 얘기해주신 부분도, 도시 사람들 얘기이긴 하지만, 제가 아는 대구 농부장터에 로컬푸드 매장이 있는데 생산자분들이 직접 운영하시고 매장 관리까지 하세요. 생산자 분들이 오셔서 굉장히 많이 사가시거든요. 우리 유기농 생산자 분들은 다른 농산품들은 그다지 유기농으로 먹지 않으시고., 그런 것처럼 소비 문제가 도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 전체, 그리고 선진국의 소비 때문에 남부 국가는 대부분 설탕만 재배하고 쌀은 수입하는, 국제적으로 보면 이런 불평등도 또 있는 문제입니다. 전일성의 차원에서 먹거리도 얘기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온 이야기 중에, 오래전부터 정부 실패, 시장 실패 얘기했는데 왜 국가주의, 성장주의인가, 차별성이 무엇인가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국가라는 게 생겨날 때부터 어떻게 하면 국가를 망하게 할 것인가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그것을 생각해봐야 하는 시기가 된 거죠. 그래서 국가주의라고 하는 것이고, 국가라는 것은 자율적인 공동체를 파괴하고 그것이 붕괴된 위에 만들어진 제도이고, 어떻게 보면 사회 계약이라는 공리주의에 기초를 두고 만들어진 근대적 제도이고, 국가주의라는 것은 근대 자본주의와 같이 발전했기 때문에 설립되고부터 계속 그에 대한 반국가적 사고가 계속되어온 것 같다. 그것을 국가실패, 시장실패라고 얘기했지만 정부와 시장의 조절에 대해서 얘기했지 그 존재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는 그다지 많이 되어 온 것 같습니다.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체념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우리 팔자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른 팔자를 그려볼까라는 걸 모색하는 자리가 이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 청중

'국가주의와 성장주의를 넘어서 자립과 자치의 새로운 나라 만들기' 이런 거대한 제목을 가지고 지역에서 일하는 몇몇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만 있는 자리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작은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주의와 성장주의에 떠밀려서 (넘을 필요도 없이) 밀려난 사람들이 만든 공동체입니다. 성매매 여성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국가주의와 성장주의가 그들의 몸을 다 사용하고 폐기처리된 사람들입니다. 20년 제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를 그들과 같이 살고 있는데, 자립 자치의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떨어져 나왔으니까 자립하고 자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 공동체들을 구경하셨으면 좋겠어요. 자립 자치 하고 있는데 새로운 나라 만들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경험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어들이 너무 현란해서 잘 못 알아들었는데, 이야기는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가끔 저는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사람들은 아무도 안 타고. 정말 실패작 방주를 만든 거잖아요. 자기 가족들만 타는. 거기에 짐승들도 다 끌어들이고, 40일 동안 비 오는데 누가 밥 먹이고 똥 치웠겠어요. 노아의 머느리도 아니고 부인이 했을 것 같아요. 성서에 보면 노아 부인은 이름이 없어요. 그냥 노아 부인(미세스 노아)이에요. 그 노아들이 그 훌륭한 작업을 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또 자립과 자치의 새로운 방주를 짜자고 하는데.. 우리 식구들과 함께 타야 될 방주를 스스로 만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립, 자치가 저절로 되거든요. 40일 비가 그치고 누가 비둘기를 내보냈을까. 노아 부인이 했을 것 같아요. 여성들의 지혜예요. 쓰나미가 훑고 간 곳을 내딛는 마음을 생각해보세요. 무지개는 떠 있는데, 온 세상이 망가지고 남은 배를 내려오는 그 마음을 생각하면 절대 무지개 하나로 용서하고 위로받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어설픈 무지개만 보이는 것 같아요. 좀 더 진지한 논의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현장의 소리들이 더 많이 들려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자리를 더 만들고 나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신양

어쩔 수 없이 떠밀린 사람들에게 생명과 새로운 나라라는 문제로 어떻게 다가갈 건가 하는 숙제를 저희에게 던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무위당만인회**

이사장 성락철

강원도 원주시 중앙동 122 밝음신협 4층 무위당기념관

033-747-4579 muwidangin@hanmail.net

<http://muwidang.org>

**(사)모심과살림연구소**

이사장 황도근

서울 서초구 서운로 19 서초월드 809호

02-6931-3604 mosim@hansalim.or.kr

<http://mosim.or.kr>



무위당 22주기 기념 생명평화활동가대회

2016. 5

국가주의와 성장주의를 넘어,  
자립과 자치의 새로운 나라 만들기